

# 베네딕도회 순교자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연구

## - 1920~1952,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 \*

장명선\*\*

1. 머리말
2. 베네딕도회의 대내외 관계와 조선 인식
  - 1) 조선 국내외 상황과 영향
    - (1) 가톨릭교회의 반공산주의 운동
    - (2) 독일 정부와 베네딕도회
  - 2) 선교사들의 조선 인식
    - (1)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
    - (2) 종교 상황에 대한 인식
3. 선교방침과 주요 활동
  - 1) 선교사들
    - (1) 베네딕도회 제1기(1909-1920) 파견 선교사
    - (2) 베네딕도회 제2기(1921-1949) 파견 선교사
  - 2) 가톨릭 운동과 전례개혁운동
  - 3) 현지인 가톨릭 지도자 양성
    - (1) 현지인 사제 양성
    - (2) 현지인 수녀와 여성인재 양성
4. 맺음말

---

\* 이 논문은 2023년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의 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국문 초록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조선 진출 초기부터 독일 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영향권 하에 놓여있었다. 이에 이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독일문화 확산'이라는 요구에 대처하면서, 일본과 8·15 해방이후 공산정권에 대면해서는 선교사이자 수도자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지키고 그들의 선교대상인 조선인들을 중심에 두면서 '표면적인 중립노선'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9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덕원수도원이 폐쇄되기 전까지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당시 독일 선교학계에서 활발히 논구되던 근대적 선교방식과 토착화 논의를 현장에 도입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에서 그 적용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했는데, 하나는 사우어 주교를 비롯하여 베네딕도회의 제1기(1909-1920)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전도를 위해 현지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방문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제2기(1921-1949)에 파견되어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추구한 방식으로 현지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초대 방식'을 모색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는 교육활동과 전례개혁운동의 성격을 띤 가톨릭 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다른 한 축에서 의료 및 자선활동을 전개하여 베네딕도회의 현실적인 선교문제였던 개신교 교세와 공산주의의 영향에 대응해 나갔다.

그 결과 1937년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북한지역에서의 종교 조사에서, 천주교는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 가운데 장로교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종교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1921년에 월산과 내평 본당에 500-600여명이었던 총신자수가 1941년 상반기에는 12개 본당에 총신자수 12,000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활동했던

베네딕도회 선교사들과 조선인 성직 및 수도자들 가운데 순교한 자들은 평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덕원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으며 가톨릭 지도자이자 후임으로 양성되었다.

주제어: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툇쥬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원산교구, 연길교구, 38위 순교자들, 북한(함경도), 교육활동, 의료 활동, 가톨릭 운동, 전례운동(典禮運動)

## 1. 머리말

1949년 8월 로마에서 발간된 『국제 신앙 서비스』(*INTERNATIONAL FIDES SERVICE*)에는 「십자가는 남아있었다」(“THE CROSS REMAINED”)는 제목으로 다음의 글이 게재되었다. 1945년 8·15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진입하자마자 베네딕도회의 선교학교들을 점탈(占奪)한 사실을 다루면서 원산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한 글이다.<sup>1)</sup>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 진입하자마자 가톨릭 교회학교의 교리교사들을 추방하였다. 원산에서는 베네딕도회의 선교학교를 점탈한 뒤 학교 지붕에 설치된 십자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건물 꼭대기로 작업자를 파견하여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화강암 십자가를 무거운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지만 십자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상징물을 가리기 위해 작업자에게 큰 금속 절단기를 팔려 다시 파견해야했는데,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무적인 신호가 되었다.<sup>2)</sup>

당시 조선 천주교회에는 총 9개 교구(敎區)가 있었다.<sup>3)</sup> 그리고 이 가운데

- 
- 1) 베네딕도회는 파리의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MEP))에 이어 조선에 두 번째로 진출한 선교회이자 첫 번째 남자 수도회로, 1909년에 당시 조선교구장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閔德孝, 1854-1933, 이하 '뮈텔'로 표기) 주교의 요청으로 교육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초빙되었다.
  - 2) “THE CROSS REMAINE”(AGENZIA INTERNAZIONALE FIDES(A.I.F.) - Seoul(A.I.F.)), *INTERNATIONAL FIDES SERVICE* - August 6, 1949 - #172 - NE 215/49., 왜관문서고 소장.
  - 3) 경성대목구, 대구대목구, 평양대목구, 함흥대목구, 덕원면속구, 연길대목구, 전주지목구, 광주지목구, 춘천지목구가 있었다. 지목구(知牧區, 교황직할지구, Praefectus Apostolicus)와 대목구(代牧區, 교황대리교구, Vicarius Apostolicus)는 전교지방이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않은 개별교회를 지칭한다. 이 구역들은 교황의 이름으로 지목구장과 대목구장에 의해 통솔된다(교회법 제368조, 제371조). 면속구는 성직자치구장이나 자치수도원장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교황청에 직속되어있는 준교구이며, 성직자치구와 자치수도원구가 있다(교회법 제370조). 덕원면속구는 '덕원자치수도원구(德源自治修道院區)'라는 명칭과 통

데 함흥대목구(咸興代牧區), 덕원면속구(德原免屬區), 연길대목구(延吉代牧區)는 1909년에 조선에 진출한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Benediktinerkongregation von St. Ottilien(O.S.B.)), 이하 ‘베네딕도회’로 표기)가 담당하고 있었다.<sup>4)</sup>

베네딕도회는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1920년 8월 5일에 설정된 원산대목구(관할지역: 함경도)를 위임받았다. 이어서 1921년 3월 19일에는 간도(間島)와 의란(依蘭)까지를 베네딕도회에 위임함에 따라 북만주대목구(1924. 이후 길림대목구) 관할이었던 이 지역들은 1922년 3월 19일에 원산대목구로 편입되었는데, 1928년 7월 19일에 다시 연길지목구와 의란자치선교구로 분리 설정되었다.<sup>5)</sup>

1921년에 베네딕도회가 그들의 새 선교지에 진출했을 때, 함경도에는

용되었다(鄭鎭奭, 「대목구와 지목구」, 『한국가톨릭대사전』 3,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1594쪽). 본고에서 이 명칭들의 사용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구로 통칭하였다. 선교사들과 선교수녀들의 이름은 성(姓)으로 표기하였으며, 발음 표기는 다음 책의 표기 방식을 따랐다: 요한네스 마르(Johannes Mahr) 지음,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芬道通史』, 칠곡: 분도, 2009, 1773~1784쪽(「오틸리아 연합회 선교사 명단」). 지명(地名)은 한자음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까지의 발간물에 널리 통용되어있는 한글 지명은 그대로 표기하였다.

- 4) 9개 교구 가운데 조선대목구(1831.9.9.설정)는 1911년 4월 8일자로 경성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리되었다. 이후 경성대목구에서 원산대목구와 평양지목구(1927.3.17.설정)가 분리 설정되었다. 원산대목구는 1940년 1월 12일자로 함흥대목구와 덕원면속구로 분리 설정되면서 원산대목구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사우어 주교는 덕원면속구의 초대 면속구장이 되었지만, 함흥대목구의 교구장직도 그대로 수행하면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새로 설정된 이 두 개의 교구들은 북한 공산정권하에 천주교회가 침묵의 교회가 될 때까지 사우어 주교의 지휘 하에 있었다(요한네스 마르, 위의 책, 2009, 423쪽, 1788-1789쪽, 1792쪽, 1795쪽, 1798쪽).
- 5) 교황 베네딕도 15세(Benedetto XV, 재임: 1914-1922)는 1920년 8월 25일에 보니파시오 사우어(Bonifatius Sauer, 辛上院, 1877-1950.순교) 대수도원장을 초대 원산대목구장으로 임명하였고, 사우어 신부는 1921년 5월 1일에 명동성당에서 주교로 승품되었다. 초대 연길지목구장은 같은 수도회의 테오도로 브레허(Theodor Breher, 白化東, 1889-1950) 신부가 임명되었고, 연길지목구는 1937년 4월 13에 대목구(초대 대목구장: 브레허 신부)로 승격되었다. 의란자치선교구는 1933년 9월 1일자로 교황청 포교성성의 교령에 의해 카푸친 작은 형제회(Order of Friar Minor Capuchin(O.F.M. Cap.), Capuchins)가 인수했으나, 이 선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1935년까지 원산대목구에서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출처: 본고의 주4).

원산과 내평, 그리고 간도에는 용정, 삼원봉, 팔도구 등 총 5개 본당만이 설립되어있었고, 파리의방전교회로부터 인계받은 총 신자수 8,087명 중에서 7,500여 명이 간도 지역의 신자들이었다.<sup>6)</sup> 그러나 베네딕도회는 그들이 경성에 설립한 백동수도원(1913.5.15.아빠스좌 수도원으로 승격)을 1927년 11월 17일에 덕원으로 이전하면서 북한(함경도)에서 정착하여 성장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는 교육, 출판, 의료 및 자선활동 등을 통한 선교방법에 힘입은 결과였다.<sup>7)</sup>

이러한 베네딕도회의 선교활동은 1949년에 공산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하자 본격적인 종교탄압정책 및 종교규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종교계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박해의 대상은 천주교였고,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반공산주의 운동 혐의로 체포되기 시작하였다.<sup>8)</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선교사들 가운데 사우어 주교를 비롯한 사망자 19명, 실종자 11명, 각지에서 끝까지 신자들을 돌보다 희생된 조선인 신부 6명, 조선인 수녀 1명, 조선인 헌신자 1명 등 총 38명이 시복시성(諡福諡聖) 대상 순교자들이다.<sup>9)</sup>

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 천주교회사』, 서울: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206-207쪽.

7) (저자미상), “Märtyrertod eines deutschen Bischofs in Nordkorea”, (날짜미상), 왜관문서고 소장 기사(Article); (저자미상), “Erschütternde Nachrichten aus unserer koreanischem Mission”, (날짜미상), 왜관문서고 소장 보고서.

8) 한국 천주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반공노선을 취했고, 교회 공식문헌을 통해 공산주의를 전투적 무신론(戰鬪的無神論)이라는 이유로 절대 양립이 불가능한 적대세력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북한 공산정권이 조직한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통한 국가 지배 체제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이상민, 「한국천주교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 운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26-30쪽; 정하선, 「한국전쟁 전후(1945-1953) 천주교인 희생자 사례 연구: 희생 과정과 희생자 조사 및 현양 활동을 중심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21쪽).

9) 공산정권은 1948년 12월부터 선교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1949년 5월 9일에 사우어 주교를 비롯한 4명을 체포한 후 이어서 총 67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1949년 5월 13일 평양

순교란 생명의 포기를 통한 신앙의 증거를 의미한다.<sup>10)</sup> 천주교에서 순교자에 대한 시복과 시성은 순교사실의 확인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현대 교회에서는 성인(聖人)의 범위로 지난날 '신앙의 증거자'란 관점으로로부터 '사랑의 실천자'라는 측면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교회가 시성된 이들을 모범으로 실천적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다.<sup>11)</sup>

본 연구는 한국 천주교회사에 있어서 20세기 순교자들에 대한 첫 시복

인민 교화소에 투옥되었는데, 사우어 주교를 비롯하여 루치오 로트(Lucius Roth, 洪泰華, 1890-1950.순교) 신부, 루페르트 클링자이스((Rupertus Klingseis, 吉世東, 1890-1950.순교) 신부, 다고베르토 앙크(Dagobertus Enk, 嚴光豪, 1907-1950.순교) 신부, 그레고리우 슈테거(Gregorius Steger, 全五範, 1900-1950.순교) 신부, 루도비코 피셔(Ludovicus Fischer, 裴, 1902-1950.순교) 수사, 요셉 그라하머(Joseph Grahamer, 威要燮, 1888-1950.순교) 수사, 그레고리우 기제리히(Gregorius Giegerich, 奇, 1913-1950.순교) 수사 등 8명은 '주범'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곳에는 김치호(金致鎬, 베네딕도, 1914-1950.순교) 신부, 최병권(崔丙權, 마티아, 1908-1950.순교) 신부, 김종수(金宗洙, 베르나르도, 1918-1950.순교) 신부, 김이식(金利植, 마르티노, 1920-1950.순교) 신부, 구대준(具大浚, 가브리엘, 1912-1950.순교) 신부 등 조선인 사제 5명도 함께 수감되었다. 체포된 총 67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주범으로 몰렸던 상기 8명을 제외한 59명은 1949년 8월 5일 옥사덕수용소로 보내졌고, 다시 만포수용소(1950.10.23.)와 관문리수용소(1950.11.12.)로 이송되었다가 옥사덕수용소(1951.1.16.)로 재수감이 이어지는 4년 5개월간 포로생활과 강제노동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생존자 42명은 1953년 11월 15일에 귀환이 결정되어 1954년 1월에 독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장정란, 「한국 성 베네딕도 수도회 출신 순교자 연구 - 시복·시성 대상 인물 분석」, 『教會史研究』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377-378쪽; 『북한에서의 시편: 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증언』(원사: *Schicksal in Korea. Benediktiner-Missionäre berichten*, St. Ottilien, 1954), 칠곡군: 분도, 1997, 106-107쪽). 관련 내용은 본고의 주12)를 참조할 것.

- 10) 그리스도교적 순교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중요하는 자에 의해 초래되어야 하며, 그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李東浩, 邊宗燦, 「순교(殉教), 순교자(殉教者)」, 『가톨릭대사전』 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5156-5163쪽).
- 11)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적 덕성을 갖추고,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성성(聖性)을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로 한정한다. '복자(福者)'는 그 성덕(聖德)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나, 그 공경의 범위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국한되는 존재를 말한다(尹敏求, 車基眞, 「시복시성(諡福諡聖)」, 위의 책, 2001, 5326-5333쪽; 조광, 「시복시성은 왜 필요한가? 순교자들을 발굴하고 공경하는 것의 의미」,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2013년 9월호, 우리신학연구소, 2013, 25-31쪽).

시성 추진 대상자인 베네딕도회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원산대목구가 설정된 1920년부터 순교가 있었던 마지막 해인 1952년까지 북한에서 이 수도회의 선교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sup>12)</sup>

베네딕도회 순교자들에 관한 연구는 2009년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의 한국진출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베네딕도회가 시복시성을 추진하면서 시성성(諡聖省)에 제출한 순교자 약전(略傳)을 토대로 베네딕도회의 시복시성 추진과정과 수도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고 시복시성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이었다.<sup>13)</sup>

필자는 상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 특히 베네딕도회가 북한과 간도에 진출한 1921년부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연길수도원(1946.폐쇄)에 이어 덕원수도원(1949.폐쇄)이 폐쇄되기 전까지의 시기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시기별로 베네딕도회가 처했던 대내외 상황 및 관계와 조선 인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12) 2017년 10월 21일, 왜관수도원에서는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아바스를 비롯한 총 38위’에 대한 시복 예비심사 조서 사본과 영어 및 이탈리아어 번역본을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였고, 현재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소속의 사제가 로마에 주재하여 시복시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들은 소속별로 덕원수도원 소속 성직수사와 평수사 26명, 연길 성 십자가 수도원(이하 ‘연길수도원’으로 표기) 소속 성직수사 1명, 연길교구 소속 사제 2명, 보이론 대수도원 소속 성직수사 1명, 툫쥁 포교 성 베네딕도회 원산수녀원 소속 수녀 3명과 현신자 1명, 덕원면속구와 함흥대목구 소속 교구사제 4명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독일인은 25명이며 조선인은 13명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신분의 명칭표기에 있어서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원 소속 사제(성직수사)와 교구소속 사제(교구사제)는 ‘사제’, 평수사는 ‘수사’로 표기하였다.

13) 장정란, 앞의 글, 2009, 361쪽. 이 외에 다음의 연구에서 베네딕도회 순교자들과 이들의 활동이 일부 조명되었다. 즉 한국전쟁 전후(1945-1953)에 천주교 회생자들의 대한 사례연구에서 이 시기 한국 순교자들의 회생 배경과 과정, 이들 대상의 조사 및 현양활동의 내용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둔 연구(정하선, 앞의 석사학위논문, 2010), 일제강점기에 북한에 설립된 교구들을 대상으로 공산정권에 의해 북한지역의 각 교구들의 설립배경과 활동을 시기별로 살펴 본 연구(김연수, 「북한 가톨릭교회의 역사적 변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 운동에 대한 역사신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이상민, 앞의 석사학위논문, 2014)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를 기반으로 설정된 베네딕도회의 선교방침과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순교자들이 조선인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과 그 희생적 여정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왜관수도원 문서고(이하 '왜관문서고'로 표기)에 소장된 한국 선교관련 문서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 문서에는 순교자들이 독일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개인서한, 모원(母院)과 독일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원요청서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Missionsblätter*(宣教誌), *Die katholischen Missionen*(가톨릭선교), 『가톨릭朝鮮(『가톨릭연구강좌』, 『가톨릭研究』)』, 『가톨릭青年』, 『경향잡지(『보감』)』, 『神友』 등 독일과 조선 천주교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순교자들과 이들 동료 선교사들의 기고문을 참조하였다.

## 2. 베네딕도회의 대내외 관계와 조선 인식

### 1) 조선의 국내외 상황과 영향

1934년 12월에 조선에 도착한 다고베르트 앙크(Dagobertus Enk, 嚴光豪, 1907-1950.순교) 신부는 베네딕도회의 제2기(1921-1949)에 파견된 선교사들 가운데 한명이다.<sup>14)</sup> 그는 1937년 말 그의 부모에게 제1기(1909-1920) 선교

14) 앙크 신부는 수도회 입회전 청년기에 프라이부르크 학생연합 출신으로 뮌헨에서는 여러 종교 활동과 '신독일 운동'의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였다. 1928년 5월 14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서원하였고 1933년 3월 26일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934년 4월 2일 덕원수도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주로 덕원수도원과 분원들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1948년 12월 1일 당시 재정 책임을 맡고 있던 앙크 신부는 밀주 제조라는 조작된 죄명으로 공산당원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1950년 10월 4일과 5일 사이의 밤에 피살되었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NECROLOGIUM*(死亡者 名簿 1910-200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성 마오로 블라치도 수도원, 2007, 17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이종한 역, 『덕원의 순교자들』, 칠곡: 분도, 2012, 151-167쪽).

사들로부터 들은 베네딕도회의 1909년 조선 진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15)</sup>

조선에서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당시 다른 수도회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열강들의 정치적 경합(競合)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이들이 조선에 진출했을 때 조선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고, 일본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에게 유혈 폭력으로 위협하며 조선 문화 말살과 함께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워 선교활동에 임해야 했습니다.<sup>16)</sup>

이후 1910년대 중후반에 원산대목구의 설정이 논의될 때, 베네딕도회는 제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으로 인해 모원과의 연락이 끊겼고, 그들의 수사 4명이 독일 조차지(租借地)인 청도(靑島)에서 군 복무를 해야 했으며 이들은 1920년이 되어서야 경성의 수도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sup>17)</sup> 원산대목구가 설정된 후에는 독일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in the Weimar Republic, 1921-1923) 상황으로 인해 모원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 등장 이후에는 제3제국(나치 독일(NS-Staat), 1933-1945) 체제하에 교회가 탄압을 받던 시기였다.<sup>18)</sup> 게다가 외환(外換) 정책으로 독일 내에서의 기부 청원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런 청원이 기부자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sup>19)</sup>

15) 제1기 선교사들과 제2기 선교사들에 관한 내용은 본고의 '1) 선교사들'을 참조할 것.

16) 다고베르토 앙크 신부가 아버지에게 보낸 서한, 1937.11.30., 왜관문서고 소장.

17) 요한네스 마르, 앞의 책, 2012, 173쪽.

18)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원산수녀원사』, 대구: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1987, 155쪽.

19) 요한네스 마르, 앞의 책, 2012, 228-229쪽. “나치가 언제 우리를 우르스베르크에서 쫓아 낼지 알 수 없었다. 매우 위태로웠다. 선교회들도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았다. 또 전혀 더무

이러한 때에 일본은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 1919.6.28.) 체결 당시 강화(講和) 회의에 승전 5대 열강에 의해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교황청 주재 외교 대표단에까지 포함되어 교황청과의 외교관계에도 참여할 정도였다.<sup>20)</sup> 이러한 일본의 입지 변화는 1922년 제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1858-1936)와 총독 부인 마스미야, 그리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 鍊太郎, 1868-1949)가 교황 비오 10세(Pio X, 재위: 1903-1914)로부터 ‘성 실베스테르 교황 기사단 훈장(라틴어: Ordo Sanctus Silvestri Papae)’을 받는 것에서도 드러난다.<sup>21)</sup> 포상이유는 조선의 주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답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1930년대 이후는 조선 국내외가 모두 혼란했던 시기였다. 일본이 만주사변(1931.9.18.-1932.2.18.)에 이어 중일전쟁(1937.7.7.-1945.9.2.)을 일으켰고 영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양국의 선교사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0년대 중반부터 전시 비상시국으로 돌입하면서 조선인들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

---

니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빈번히 ‘외환 반출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요한네스 마르, 앞의 책, 2012, 440쪽에 수록된 쿠니베르토 오토 신부의 누이인 루이트라우트 수녀의 회고의 일부를 재인용함)

- 20)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재위기간 중에 바티칸 주재 외교사절은 14개국에서 26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되어있었다(아우구스트 프란츠(August Franzen) 저; 최석우 역, 『세계 교회사』, 칠곡: 분도, 2001, 410쪽).
- 21) 교황 훈장(라틴어: ordines Pontificales, 일명 교황청 기사 훈장)은 교황이 교회에 공헌한 평신도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공훈과 외교 의례 또는 호의로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상후보자는 그 나라의 주교나 교황 대사의 추천을 받아서 수여된다. 몇 가지 교황 훈장들 가운데 성 실베스테르 교황 훈장은 원래 금군 훈장(金軍勳章, Golden Militia)의 일부로 184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Gregorio XVI, 재위: 1831-1846)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 훈장과 같은 등급을 갖는다(AAS, 제14권, 1922, 207-208쪽; 宋悅燮, 『교황훈장』, 『한국가톨릭대사전』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695-696쪽).
- 22) (저자미상), “Bonifaz Sauer(1877-1950), Abt(1913-1950) und Bischof(1920-1950) in Korea”, (날짜미상), 왜관문서고 소장 보고서;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서울: 도서출판 빅벨, 1998, 869-870쪽.

초반 함경도에서는 ‘원산사건’(1942.6.10.)으로 개신교파뿐만 아니라 베네딕도회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sup>2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어 주교는 교황청과 조선 천주교회의 지침 하에 그들 수도회의 특성에 따른 선교방침을 따르면서, 모든 이웃 선교부와 일본에 있는 독일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현실적으로 베네딕도회가 고려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본국에 선교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지원을 요청할 때 교황청, 독일, 일본, 그리고 그들의 선교대상인 조선인들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일본과 중국 주재 독일 정부기관에 이어 독일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점이다.

이하 북한에서 베네딕도회의 대내외 관계와 선교방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선교사들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겠다.

#### (1) 가톨릭교회의 반공산주의 운동

1945년 8·15 해방이후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박해를 가한 곳은 덕원수도원이었고, 박해의 이유는 조선 천주교회의 반공산주의 운동 때문이었다.

조선 천주교회가 교회 기관지(『경향잡지』)를 통해 반공산주의 글을 실기 시작한 시점은 1921년 2월호 부터였다.<sup>24)</sup> 이 시기는 1917년 10월 러시아에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을 근간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후 1920년대부터 반종교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던 때였다.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지도자들은 역대 교황들의 반공산주의 정책을 이어 받아, 조선내의 민

23) Arnulf Schleicher, “Religiöse und soziale Verhältnisse in Wonsan in ihrer Beziehung zur Mission”, *Missionsblätter* 39, St. Ottilien, 1935, pp.170-173, pp.216-219. 동아기독교(침례교회)가 교단 역사상 최대의 수난을 당한 사건으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으로 교단 지도자들의 검거 및 체포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이경희, 『한국침례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원산사건과 미남침례회 제휴를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박사학위논문, 2018, 97쪽).

24) 「교황 분도 제15위 폐하의 윤음」, 『경향잡지』제464호, 1921.2., 76-81쪽.

족주의 노선과 연계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되는 것을 막고 이를 배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25)</sup> 조선 천주교회는 특히 역대 교황들의 회칙과 가톨릭계 언론을 통해서 소련과 스페인 등지의 반종교 운동 및 종교계 탄압 소식을 접하면서 공산주의에 비판적이었다.<sup>26)</sup> 그리고 1930년대부터 가톨릭 운동(Catholic Action)을 추진하면서 교회 출판물을 총동원하여 본격적으로 반공 투쟁적인 글들을 발표하였다.<sup>27)</sup> 이러한 때에 연길교구가 공산주의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베네딕도회는 가톨릭교회의 지침과 함께 일본의 반공정책에 조우(遭遇)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sup>28)</sup>

- 
- 25) 가톨릭계에서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처음 경고한 것은 1846년 교황 비오 9세(Pio IX, 재임: 1846-1878)의 회칙(回勅) <여러 해 동안>(Qui Pluribus)이었다. 이 회칙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목적은 예배(禮拜, Worship)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후 역대 교황 중에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유물론적인 무신론과 전투적인 무신론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한 교황은 비오 11세(Pio XI, 재임: 1922-1939)였다. 그는 교황 레오 13세(Leone XIII, 재임: 1878-1903)가 1891년에 발표한 노동현장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사회 질서의 재건에 관하여>(Quadragesimo Anno, 1931.5.15.)를 반포하여 온건한 사회주의와 과격한 공산주의를 구별하였다(정하선, 앞의 논문, 2010, 56-58쪽). 이후 그가 반포한 일련의 회칙들과 강경한 태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 가톨릭교회가 반공주의를 견지하는 추동력이 되었다(교황 비오 11세(Pope Pius X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사십주년 :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58-59쪽).
- 26) 교황 비오 12세(Pio XII, 재임: 1939-1958)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유럽에 수립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한 반종교적인 박해를 비난하면서 서유럽의 교회들이 공산주의의 세력에 직면하여 단결하도록 촉구하였다(변중찬, 「비오 12세」, 『한국가톨릭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3787쪽).
- 27) 비오 11세는 1931년에 반포한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1931.5.15.)에 이어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관한 회칙>(Divini Redemptoris, 1937.3.19.)을 통해 공산주의를 단죄하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무신론적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4항).(김진소, 앞의 책, 1998, 994-996쪽). 비오 11세는 가톨릭 운동의 활동 방침을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방지하는 것과, 이들과의 투쟁에는 사제와 신도가 협력해야 하며 가톨릭 신문과 출판물 등 정보매체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적 술책을 경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교황 비오 11세(Pope Pius XI),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역,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관한 회칙(Divini Redemptoris)』, 가톨릭출판사, 1981, 11쪽, 58-59쪽, 61쪽).
- 28) 김진소, 앞의 책, 1998, 996-997쪽.

## (2) 독일 정부와 베네딕도회

원산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의 시기에 독일 정부와 베네딕도회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포츠담 연방기록보관소(ZStA 포츠담)에 소장되어있었던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베네딕도회 관련 문서들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29)</sup> 여기에는 사우어 주교와 브레허 주교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지원요청서와 정기적으로 선교지의 현황과 활동을 보고한 문서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문서들은 당시 목단강(牡丹江) 주재 독일 영사관(Deutschen Konsulats in Mukden)과 도쿄 주재 독일 대사관(Deutsche Botschaft in Tokyo)의 승인을 거쳐 베를린에 위치한 외무부로, 또는 대련(大連) 주재 독일 영사관(Deutschen Konsulats in Dairen)을 통해 베를린으로 보내지고 있었다.<sup>30)</sup>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9.1.-1945.9.2.) 이후부터는 주조선 독일 총영사(Deutsche Generalkonsul in Korea)와 주만주국 독일 영사(Deutsche Konsul in Mandschukuo)의 추천을 받아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소속 아빠스좌 수도원인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Abtei Münsterschwarzach)을 통해 독일 외무부의 승인을 긴급 요청하기도 하였다.<sup>31)</sup> 즉 이 시기에 사우어 주교와 브레허 주교가 본원에 보낸 재정 지원과 인력(사제, 수사, 수녀) 파견 및 이들의 입출국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들은 상기 두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모원에 전달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에도 독일 외무부에 정기적으로 두 교구의 선교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들의 서두는 그들 수도회에 대한 소개와 선교지의 현황 및 활동 보고와 함께 선교지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베네딕도회의 역할

29) *Acta* vol.IV (1925.1.-1944), Geistliche Abtheilung, Zentrales Staatsarchiv, Hergestellt im Bundesarchiv, Abteilungen Potsdam, 왜관문서고 소장.

30) 베를린에 교회 관련 사무를 관리 및 담당하는 당시 독일 정부 부처(das Reichs- und Preußische Ministerium für die kirchlichen Angelegenheiten)와 외무부(Auswärtiges Amt)로 발송되었다.

31) Abtei Münsterschwarzach, 13. April 40, *Acta* vol.IV (1925.1.-1944).

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특징이 있다. 1940년에 원산대목구가 덕원면속구와 함흥대목구로 분리되었을 때에도 “원산대목구의 일부가 조선인 성직자들에게 이관되었지만 사우어 주교아빠스의 지도하에 있으므로 조선인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독일성(Deutschtum)’을 지향하도록 보장되어있다”는 식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나치 정권시기에 전달된 대부분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공통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하나는 베네딕도회가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에게 독일어 교수(教授)와 독일 문화 전수(傳授)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보고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베네딕도회가 19세기 후반 독일의 문화투쟁(Kulturkampf, 1871-1879)과 이로 인한 반(反)가톨릭교회 운동 이후에 설립된 수도회라는 배경을 염두하며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32)</sup> 따라서 조선에 파견된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독일, 일본,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했고 동시에 이 지배세력들을 포함하여 현지인(조선인)들에게는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네딕도회는 독일 정부에 덕원수도원과 연길수도원이 선교지에서 독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각하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기에는 조선과 간도지역이 “독일의 적대국과 중립국의 활동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선교지에 있는

32) 상트 오틸리엔의 베네딕도회(1884.창립)는 19세기에 독일에서 종교부흥이 다시 일던 시기에 창립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독일 제2제정(1871-1918)하에 본격적인 식민주의 팽창정책이 실시되고, 1875년에 절정을 이루던 문화투쟁이 한풀 꺾이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독일 천주교회가 문화투쟁 기간 동안 겪어야 했던 경험들은 베네딕도회의 창립과정과 이후의 활동 및 존속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와 독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베네딕도회의 선교사명의 역사적 정당성과 문화적 사명을 주장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총아빠스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 이하 ‘베버 (총)아빠스’로 표기)에게까지 계승되었고, 조선에 진출한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의 선교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 연구」, 『敎會史研究』 33, 2009, 169-176쪽).

적대국의 선교사들이 그들 본국에 대한 선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방책이다”는 식으로 기술되어있다.<sup>33)</sup>

이에 대한 상세보고로써 조선에서 활동하는 다른 선교회와 수도회의 현황 및 주요 활동을 개괄하면서, “조선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신도 대상의 유일한 고등교육 기관인 상업학교는 파리외방전교회의 본국인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베네딕도회 이후 조선에 진출한 메리놀외방전교회와 성골롬반외방전교회 등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베네딕도회보다 월등한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sup>34)</sup> 또한 조선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국 개신교 교파들의 현황과 이 교파들의 주요 활동인 교육 및 의료활동의 규모와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조선에 미치는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sup>35)</sup> 그리고 베네딕도회의 선교지에 충분한 선교인력의 투입과 독일 정부차원에서 재정부적 지원을 함께 요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베네딕도회가 독일 정부와 교신(交信)한 일련의 문서들은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와 같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성격이 아니라, 독일과 독일의 적대국과의 관계를 염두하며 제3국가에

33) “Benediktiner-Mission, Korea”, Deutsche Botschaft, Tokyo, den 7. März 1940, *Acta* vol. IV (1925.1.-1944).

34) “Das Wirken der deutschen Benediktiner Mission und die Missionstätigkeit anderer Nationen in Korea”, *Anlage zur Bericht* Z. Nr. 65/38 vom 8. März 1938, *Acta* vol. IV (1925.1.-1944). 조선 천주교회에는 1945년 8.15 해방 이전까지 총 3개의 선교회와 2개의 수도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9월 9일자 교서를 통하여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된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파리외방전교회원 브뤼기에르(Bruguière, 蘇, 1792-1835) 주교의 조선 초대 대목구장 임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은 183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에 진출한 수도회 및 선교회는 독일 베네딕도회(1909),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1923), 아일랜드 성골롬반외방전교회(1933), 캐나다 관구 소속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1937)이다(車基眞, 『서울대교구』, 『한국가톨릭대사전』 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344쪽).

35) “II. Personal und sonstige statistische Angaben der verschiedenen amerikanisch-Protestantischen Sekten”, *Anlage zur Bericht* Z. Nr. 65/38 vom 8. März 1938, *Acta* vol. IV (1925.1.-1944).

서 독일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체’로서의 베네딕도회의 역할과 입지(立地)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서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39년에는 이미 2년 전 경성에 설립된 독·일협회(1937.6.26.창립)에 사우어 주교가 부회장으로 추대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가톨릭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글을 일부 인용하여 보고하였다. 즉 독·일 협회가 설립된 지 1년 후 독일과 일본간의 문화협정(1938.11.18.)이 이미 체결된 시기였지만, 1939년의 이 문서에는 1937년의 상황을 “일본인 저명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대부분 독일어를 구사하며, 부회장으로 추대된 사우어 주교는 ‘독일을 위한 봉사’로서 이 직책을 받아들였다”로 밝힌 정도로만 주목한 문서이다.<sup>36)</sup> 이러한 시각은 이어지는 또 다른 정기간행물의 인용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1939년 만주국에서 베네딕도회의 활동에 대한 일본군 장교의 치하에 관한 이 기고문에 대해서는 반공산주의에 대한 이탈리아(교황청), 독일, 일본의 공통된 입장만을 조명한 문서이다.<sup>37)</sup>

따라서 1930-40년대에 조선에 대한 독일 정부의 관심사는 독일과 일본 양국간의 정치·문화적 관계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 독일의 영향력 확산 및 유지를 위한 선교사들의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sup>38)</sup> 결국 베네딕도회가 제출한 보고서들은 이러한 나치 독일의 ‘독일 문화 전파’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36) “Gründung einer deutsch-japanischen Vereinigung in Soul”, Aus *Die Getreuen*, Zeitschrift der katholischen Auslandsdeutschen Mission, Berlin/November 1939. 16. Jahrgang, *Acta* vol.IV (1925.1.-1944).

37) “Monatsschrift der Benediktinermissionäre von St.Ottilien in Oberbayern”, *Missionsblätter* 43. Jahrgang, Juni 1939 No 6, *Acta* vol.IV (1925.1.-1944).

38) “답장: 상트 오티리엔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의 동아시아 출국 허가서. 1940년 4월 25일자 Kult A 1273/40 편지를 첨부함. 전시이기는 하나 동아시아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트 오티리엔 베네딕도회원들의 동아시아 출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방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가 많거나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선교사를 지명하여 파견할 것을 권고한다.”(베를린에서 외무부로 발송한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의 동아시아 출국 허가서, Berlin, der 7. Mai 1940, *Acta* vol.IV (1925.1.-194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과 일본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베네딕도회가 취한 행보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에게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선전효과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것이 조선인 대상의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sup>40)</sup> 그리고 이들의 선교활동이 강제 중단되는 시기까지의 전체적인 행보를 조명하면 베네딕도회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선교사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일본과 베네딕도회와의 관계에 대한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신자 그리고 이교인들의 시각과 입장도 분명치 않게 나타난다.<sup>42)</sup> 그러나 나치 독일 정부와 베네딕도회와의 관계는 대체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은 외국을 통치하는 도구로써 가톨릭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 [...] 독일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곳 가톨릭 교회는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 [...] 가톨릭 교회는 독일 정부로부터 연간 3,000위안의 보조금 외에 로마와 다른 곳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sup>43)</sup>

39) 박보영, 「전간기 독일-일본 관계와 식민지 조선의 독일 선교사」, 『대구사학』 152, 2023.8.

40) 윤선자,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회 통제 양상」, 『教會史研究』 57, 2020, 147쪽.

41) 관련 논문은 다음을 참고할 것: Son Chi Hun, *Studien zur benediktinischen Missionsmethode von 1909 bis 1949 in Korea und in der Mandschurei*, Lizentiatarbeit zur Erlangung des Grades eines Lizentiaten der Theologie an der Katholisch-Theologischen Fakultät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1996, 왜관문서고 소장; 장명선, 「베네딕도회의 간도지역 선교활동과 문화운동 : 延吉教區, 1921~1946」,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34쪽; 최기영, 「1930년대 《가톨릭少年》의 발간과 운영」, 『教會史研究』 33, 2009.

42) 관련 내용은 다음 논문과 간도 출신 조선인 신자의 타이핑본을 참조할 것: 장명선, 위의 논문, 2023, 67쪽; 지철근, 「북간도 천주교 역사」, 2007, 왜관수도원 소장 미출간 타이핑본. 지철근(1953.9.13.)은 1897년 브레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북관(北關)의 열두(十二)종도'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유봉(池有鵬)의 후손이다(장명선, 위의 논문, 2023, 154쪽 주71)의 일부를 재인용함).

43) Da Gu Hu Feng, "Untersuchungsbericht über die Religionen [in den Provinzen Jilin, Yenki und Binjiang]", (발행처 미상), 1937, pp.63-67, *Acta* vol.IV (1925.1.-1944).

상기 인용문이 수록된 1937년 간도지역(길림성, 연길성, 빈강성)의 「종교 조사 보고서」에는 간도에서 독립운동으로 수배된 조선인들에 대한 베네딕도회의 입장과 반응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sup>44)</sup>

[...] 가톨릭 교회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입장을 띠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비밀업무는 영사관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과 진압사건에 관하여 국외에 가장 정확히 보고한 이들은 바로 사제들이다. 가톨릭 교회는 박해받는 조선인들의 망명을 도와주었고 수도원에는 이 일을 수행할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교회는 또한 신자들에게 보호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방치하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자들에게 합류할 것이라고 선전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는데, 선교사들은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 연길교구에 속하는 묵단강 본당은 193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신자 수는 2,000여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만주족은 15명, 일본인은 4명이고 대다수가 조선인들이다. [...] 조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연대감을 나타낸다.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해야한다.<sup>45)</sup>

## 2) 선교사들의 조선 인식

베네딕도회가 경성의 수도원을 덕원으로 이전한 1927년 이후는 일선 선교현장에서 베버 총아바스의 선교사상과 선교방침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험했던 시기였다. 동시에 이들의 활동노선은 당시 독일 선교학계에서 활발히 논구되던 근대적 선교방식과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44) 간도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현지에서 신부들의 보고에 의하면 독립운동자들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앞의 책, 1987, 67쪽).

45) 본고의 주43)의 왜관문서고 소장 문서(*Acta* vol.IV (1925.1.-1944)), p.55.

사료된다.<sup>46)</sup>

함경도에서 근대적 선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덕원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또한 정기적인 월례회합을 통해 각 본당(Missionsstation, 선교기지)에 파견되었던 사제들의 성찰의 장소이자 사목자(司牧者)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펼쳐진 사목 연수의 중심지였다. 이 기간에는 보통 오전에는 종교적 쇄신을 목적으로 하는 수덕적 회의가 이루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교의신학과 교회법 등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특히 선교학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주제는 선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성과 관계된 전반적인 연구도 포함되어있었다. 1930년 이후 이 분야는 주로 프리돌리노 침머만(Fridolius Zimmermann, 閔德基, 1900-1946) 신부가 담당하였고, 그는 ‘한민족의 유래’와 ‘조선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되기까지의 한국교회사’에 관심을 갖고 강연하였다.<sup>47)</sup>

이후 1930년대 말 쿠니베르트 오토(Kunibertus Ott, 吳, 1912-1952.순교) 신부는 독일에 있는 누이에게 베네딕도회가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한 선교활동의 성격을 “독일 모원보다 규모면에서는 조금 작지만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오히려 조선식(朝鮮式)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당시에 베네딕도회가 시도한 ‘현지적응(토착화)’에 관한 상황 설

46) 베버 총아빠스는 먼저, 베네딕도회의 동아시아 첫 선교지인 조선에서 ‘수도원 중심의 공동체 생활과 그것을 기반한 선교활동’이라는 선교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생활, 사목활동, 교육, 출판, 의료 및 자선 등 사회복지활동과 노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선교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교사들은 토착문화와 풍습에 적응하여 살아야하고, 그리스도교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그 모든 문화를 허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1920년대부터 베네딕도회 내부에서 유럽우월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각 선교지의 문화를 고려한 근대적 선교방식으로서 활발히 논의되던 토착화(Inculturation)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장명선, 앞의 논문, 2023, 17-19쪽).

4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천주교회사 자료집 제2집: 원산교구 연대기』,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1, 271쪽(덕원수도원 1935년 전반기, 원본: *Chronik*, 1935. Nr.7 pp.20-30).

명으로 이해된다.<sup>48)</sup>

이보다 앞서 1930년대 중반, 아르놀포 슐라이허(Arnulfus Schleicher, 安世明, 1906-1952.순교) 신부는 예수(Jesus)의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 참된 목자의 원형을 제시하면서 “선한 영혼의 목자에게 요구되는 것들 가운데 우선 시 되는 것은 자신의 양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따라서 “선교사는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자신의 양떼인 현지인들의 관습과 풍습을 알아야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알아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로도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선교지의 종교적, 사회적 상황을 알고 이를 선교활동에 고려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판단하였다.<sup>49)</sup>

48) 쿠니베르트 오토 신부가 루이트라우트 수녀에게 보낸 서한, 1937.11.6., 왜관문서고 소장. 오토 신부의 누이인 루이트라우트 수녀는 우르스베르그의 성 요셉 수도원에 입회하였는데 교육자로서도 유명하였다. 그리고 오토 신부는 사제와 신자들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전례 즉 전례개혁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P. Kunibert Ott, *Missionar und Bekenner*, Hg. Pfarrgemeinde Edelstetten, (날짜미상), 왜관문서고 소장). 그는 1934년 5월 14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에서 서원한 후, 나치 독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1937년 8월 29일 조선으로 파견되어 덕원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마치고 1939년 4월 30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리고 덕원수도원이 폐쇄될 때, 공산당원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된 후 1952년 6월 14일 순교하였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25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저, 앞의 책, 2012, 438-456쪽).

49) Arnulf Schleicher, *op. cit.*, 1935. 슐라이허 신부는 1926년 5월 15일 상트 오티리엔에서 서원하였고 1930년 7월 13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리고 1932년 4월 10일 덕원수도원으로 파견되어, 덕원신학교에서 교의신학과 성서주석학 교수, 수련장 그리고 덕원수도원 부원장 소임을 맡았다. 그는 내적으로는 항상 선교 방법의 개선과 새로운 본당 설립의 가능성, 덕원수도원과 신학교의 재건을 계획했던 인물이었다. 공산당원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된 후에는 사우어 주교에 의해 수용소 공동체의 영적 책임자로 지명되어, 수감생활 동안 수도형제들을 위해 성서주석학 강화(講話)를 하였으며, 장상으로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는 1952년 6월 28일 옥사덕수용소에서 순교하였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25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88-110쪽).

이 시기 베네딕도회는 원산지역의 종교와 사회적 상황을 조선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원산에 관한 이들의 인식내용을 중심으로 1920년대 이후 베네딕도회의 선교활동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 (1)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

1930년대 초반 함경남북도과 간도지역은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 공업화와 이면적 착취로 인해 조선인들의 이주·이민이 증가했으며 또한 사상적으로는 불세비즘의 영향이 가장 컸던 지역이다.<sup>50)</sup> 그러나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조선인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주목한 사항은 조선인들의 빈곤 상태였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지인 “동아시아에는 문명화된 그러나 순박하고 까다롭지 않은 민족(조선인)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착취로 인해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은 거의 없으며, 소작(小作)을 위해 소득의 절반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베네딕도회는 이러한 상황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악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와 동시에 상급업급한 바와 같이 조선인들의 이주·이민 현상을 고려해야 했다.<sup>51)</sup> 선교사들은 인구유동의 증가로 인하여 선교사들과 접촉했던 많은 지역민들이 선교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세례 받은 사람들 역시 사제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이주한 결과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종교적

50) 송규진, 「함경선 부설과 길회선 중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나진·웅기·청진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57, 2014, 325-358쪽.

51) 쿠니베르토 오토 신부가 부모에게 보낸 서한, 덕원에서 1939.3.25., 왜관문서고 소장; 쿠니베르토 오토 신부가 루이트라우트 수녀에게 보낸 서한, 고산에서 1939.8.29., 왜관문서고 소장; 솔라노 헤르만 수사가 부모에게 보낸 서한, (날짜미상), 왜관문서고 소장. 솔라노 헤르만(Solanus Hermann, 1909-1950.순교) 수사는 1933년 5월 13일에 상트 오틸리엔에서 서원한 후 1936년 10월 11일에 덕원수도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덕원수도원이 폐쇄될 때까지 건축기술자로 일했고, 1950년 12월 13일 만포 인근 방공호에서 순교하였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22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300-310쪽).

미지근함, 무관심, 종교적 진리와 의무에 대한 망각 등 냉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up>52)</sup>

빈곤은 원산과 같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들은 일주일 내내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했으므로, 특히 노동에 투입된 남성들이 선교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노동 조건은 엄청난 실업률과 결합되어 공산주의의 가장 비옥한 온상이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원산과 같은 도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베네딕도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오래되고 좋은 전통과 관습들이 파괴되고, 종교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며 부도덕한 사상이 퍼지는 중이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가톨릭의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직 공산주의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었다.<sup>53)</sup>

상술한 일본의 식민주의 폭력성에 관한 단편은 1925년에 베버 총아빠스가 조선을 방문하면서 이미 지적한 사항이었다. 조선에 대한 베버 총아빠스의 연민과 우려는 이후 조선에 파견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54)</sup>

## (2) 종교 상황에 대한 인식

베네딕도회는 함경도 진출 당시 이 지역의 종교진영을 크게 두 갈래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대다수가 이교인인 것과 다른 하나는 베네딕도회보다

52) Arnulf Schleicher, *op. cit.*, 1935, pp.216-219.; 「조선 천주교회現勢(1939~1940)」, 『경향잡지』 제928호, 1940.11.12., 275쪽.

53) Arnulf Schleicher, *op. cit.*, 1935, pp.216-219.

54) 장명선, 앞의 논문, 2023, 16-18쪽.

먼저 진출하여 활동 중인 개신교들이었다. 이러한 종교 상황 하에 원산은 19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비천주교 진영이었지만 점차 지역민들로부터 “천주교는 훌륭한 종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특히 여성과 그 자녀들이 천주교회를 찾아오고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천주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는 있었지만 가족부양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가기를 망설이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선교사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조선인 남성가장들이 천주교회가 강조하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이는 특히 이교적 관습 속에서 살아온 노년층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이어져온 여러 관행과 관습이 동아시아인들에게 천주교 신앙의 전파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파악하였다.<sup>55)</sup>

이에 선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인 여성들 대상의 전교활동은 다음 두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첫째는 남성들과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일상의 주인공으로써 종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종교도 전적으로 부모나 배우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세례를 받거나 천주교로의 개종에 제약”을 받는 문제였다.<sup>56)</sup> 둘째는 여성들의 일상생활 전체에 만연해 있는 미신과 귀신숭배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이교 신앙에 따르면 하늘의 주인인 ‘하늘님’은 수많은 귀신들의 최상위에 있으며, 이 하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천주님에 관한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므로 선교에 오히려 용이하다”고 파악하였다.

선교사들은 오히려 조선인 지식인 계층과 청년층에서 미신에 대한 종교적 측면에서의 무관심 또는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55) Olaf Graf, “Pionierarbeit im Lande der Morgenstille”,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37, pp.8-14, pp.43-51.

56) Callistus Hiemer, “Wie missioniere ich?”,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31, pp.78-82, pp.108-112.

이들에 대하여, “서구종교의 추종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이들을 유교적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받은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부류와 서구로부터 이식된 근대문화와 지식 그리고 공산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및 다양한 사조의 영향을 받은 부류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초반 원산을 비롯한 함경도의 종교 상황은 미신보다는 천주교 교세를 추월하는 개신교의 위세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솔라이허 신부에 따르면, 당시 원산시내에는 6개 정도의 개신교 예배당이 있었고, 이들은 교육활동과 출판을 통한 문서전도를 통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예컨대 베네딕도회가 함경도에서 초등교육기관 2개교[내평(1921. 내평 근피학교 설립), 원산(1922.원산 해성학교 개교)]를 설립했을 때, 개신교 교회들은 원산에 이미 현지인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 서점을 운영하면서 개신교 여러 교파의 서적들을 배포하고 있었다.<sup>57)</sup>

이렇게 원산의 종교 및 사회적 상황은 베네딕도회의 선교 사업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베네딕도회는 1930년대 이후부터 미신 등과 같은 이교는 이미 쇠퇴하였고, 불교는 지역민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잃고 쇠신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며, 개신교는 이전의 영향력과 신봉자들을 점점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파악하였다.<sup>58)</sup> 반면 천주교회는 특히 이교도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크게 상승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베네딕도회는 이러한 평판과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sup>59)</sup>

이러한 인식하에 베네딕도회는 교회와 학교 건립 등 건축 활동, 교육, 출

57) Arnulf Schleicher, *op. cit.*, 1935, pp.172-173, pp.216-219.

58) (Privatmitteilungen.) J. M. W., “Korea”, *Die katholischen Missionen* 63, Freiburg, 1935, pp.165-166.

59) Arnulf Schleicher, *op. cit.*, 1935, p.219.

판, 의료 및 자선사업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교회에서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전례를 거행하고 학교에서는 근대지식의 교수와 함께 특히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sup>60)</sup> 그리고 교육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현지인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이끄는 것이었다.<sup>61)</sup>

### 3. 선교방침과 주요 활동

#### 1) 선교사들

베네딕도회 한국 진출 60주년 기념 논총인 『환갑』(*Hwan Gab*)에서 올라보 그라프(Olavus(Olaf) Graf, 金大振, 1900-1976) 신부는 베네딕도회의 주요인물로 다음의 선교사들을 상기시키고 있다.<sup>62)</sup> 즉 “1922년에 조선에 파견된 후 1931년에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의 2대 총아빠스로 승인된 크리스토모 슈미트(Chrysostomus Schmid, 金時練, 1883-1962) 신부, 덕원수도원 원장과 부감목에 이어서 신학교 교수를 겸임했던 로트 신부, 덕원신학교 학장 안셀모 로머(Anselmus Romer, 盧炳朝, 1885-1951.순교) 신부, 클링자이스 신

60) 쿠니베르트 오토 신부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 고산에서 1948.12.28., 왜관문서고 소장; 쿠니베르트 오토 신부가 동생 수녀에게 보낸 편지, 고산에서 1948.12.28., 왜관문서고 소장.

61)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가 은인에게 보낸 감사편지, 덕원에서 1940.3.13., 왜관문서고 소장;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가 은인에게 보낸 감사편지, 덕원에서 1941.2.21, 왜관문서고 소장.

62) 그라프 신부는 1921년 10월 4일 상트 오티리엔에서 서원하였다. 1926년 3월 7일에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928년 5월 27일 덕원수도원으로 파견되었다가 1938년 7월 29일 상트 오티리엔으로 귀환한 바 있다. 그는 1954년 1월 29일 왜관수도원으로 재파견되어 활동하다가 1971년 2월 13일 상트 오티리엔으로 귀환하였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 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38쪽).

부와 솔라이허 신부 등 덕원신학교 교수들, 선교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자 개척자인 칼리스트 히머(Callisto Hiemer, 任竭忠, 1884-1968) 신부와 파비아노 담(Fabianus Damm, 卓世榮, 1900-1964) 신부, 야누아리오 슈뢰터(Ianuaris Schrötter, 楊聖基, 1880-1969) 수사, 일테폰소 플뢰칭거(Ildefons Flotzinger, 富, 1878-1952.순교) 수사, 그라하며 수사 등과 같은 전문가 수사들”이다.<sup>63)</sup> 그라프 신부는 이들을 베네딕도회의 모토(Motto)인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와 ‘눈 먼 이들에게 빛을(Lumen Caecis)’이라는 오틀리엔 연합회의 선교 표어를 현실화시키는데 기여한 인물로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성향을 두 그룹으로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한 그룹은 후반기에 파견된 비교적 경륜이 짧고 독일 청년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가톨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활동들 가운데에 특히 전례개혁운동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이 운동의 목적은 선교지의 언어로 번역된 교리문답서와 선교지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한 전례(민속 예배)를 지지하며, 신자들이 모국어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다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그 외에 다수의 선교사들을 지칭하며 경륜이 더 길고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조선 진출 제1기 선교사들이었다. 이들 모두의 수장인 사우어 주교는 후자에 더 가까운 세대에 속했지만 양쪽의 조율을 시도하며 아울러 눈감아 줄줄도 아는 지도자였다. 그리고 로트 신부를 비롯한 상기 베네딕도회의 제1기(1909-1920)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제2기(1921-1949)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취지를 받아들여 협조하는 선배 선교사들이었다.<sup>64)</sup>

63) 그라하며 수사의 활동에 관해서는 덕원수도원과 원산수녀원의 의료 활동에 대한 본고의 ‘(2) 현지인 수녀와 여성인재 양성’을 참조할 것.

64) Olaf Graf, “ABTBISCHOF BONIFATIUS SAUER OSB – Lebensbild des Gründers der Benediktinermission in Korea”, *Hwan Gab: 60 Jahre Benediktinermission in Korea und in der Mandschurei*, Vier-Türme-Verlag Münsterschwarzach, 1973, pp.67-79. 로트 신부는 1910년 10월 16일 샤프 오틀리엔에서 서원한 후 로마 성 안셀모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 (1) 베네딕도회 제1기(1909-1920) 파견 선교사

조선 첫 파견 선교사인 사우어 주교는 조선 진출 초기부터 베네딕도회의 모토에 일치하는 모범을 보여주려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경성에 이어 덕원과 연길에 건립한 수도원은 선교와 그리스도교 문화의 견고한 중심이 되어야 했고 이곳에서 수도승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교육중심의 선교활동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함경도 진출 초기에 교육활동을 통해서만이 지역의 개신교와 불교의 교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up>65)</sup> 그는 “경건한 수도자이면서, 지치지 않는 일꾼이자 영리한 전략가였으며 항상 장거리 여행을 통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확인하는 여행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지도자이자 선교활동의 후원을 받기위한 지치지 않는 편지 작가였다.”<sup>66)</sup>

사우어 주교와 히머 신부 등 베네딕도회의 제1기에 활동한 선교사들은 교육 사업을 위해 초빙되어 간접 선교 시대를 보낸 세대들이다. 이들은 1921년부터 새로운 선교지에서 사우어 주교의 지휘 하에 조선에서 ‘가난한 자’로서 실천적으로 선교에 임했고 무엇보다 조선인과 ‘똑같이 되기’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다.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에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식민지배국 출신으로서 식민지배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

그리고 1913년 10월 16일 종신서원을 하고 1914년 7월 5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후 뮌헨 교황대사관에서 보좌관으로 선택되어 임무를 완수한 후 1924년 8월 17일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지도력을 갖춘 수도자들 중 한명이었고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로트 신부는 1949년 5월 9일 북한 정치보위부원들에게 의해 체포되어 1950년 10월 3일과 4일 밤사이에 평양교화소에서 공산당원에 의해 살해되었다(성 베네딕도회 오딜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17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50-87쪽).

65) Bonifatius Sauer, “Won-san”, *Die katholischen Missionen* 50, Freiburg, 1921/22, pp.55~57; \_\_\_\_, “Sorgen und Hoffnungen in Wonsan”, *Die katholischen Missionen* 51, Freiburg, 1922/23, pp.162~165; Max Rast S. J., “Bilder aus der Tarahumara = Mission in Mexiko”, *Die katholischen Missionen* 51, Freiburg, 1922/23, pp.165-281.

66) 본고의 주7)의 왜관문서고 소장 문서.

접근한 선교방법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방식은 1920년대 초반 당시 선교지의 상황 때문이었다. 베네딕도회가 함경도에 진출했을 때 선교사들은 원산과 내평 외에 많은 신자들이 함경도 전역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10년 이상 사목활동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부족한 선교사들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각지에 흩어져있는 신자들을 찾아 나설 순회 교리교사(敎理敎師)와 전교회장(傳敎會長)의 확충을 급선무로 지목했던 것이다.<sup>67)</sup>

## (2) 베네딕도회 제2기(1921-1949) 파견 선교사

베네딕도회의 제2기라고 볼 수 있는 1921년부터 1949년까지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 덕원수도원이 있었지만 동시에 본당 사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직접 선교 시대이다. 이 시기에 파견되어 활동한 선교사들 가운데 그레고리오 슈테거(Gregorius Steger, 全五範, 1900-1950.순교) 신부는 그가 파견된 1930년대 초반 조선의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sup>68)</sup> 슈테거 신부를 비롯하여 이 시기 선교사들에게 비친 조선인들의 모습은 도시화로 인해 사고가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오랜 식민지배하에 있으면서 대부분 해방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있는 상

67) Callistus Hiemer, "Koreanische Katecheten", *Missionsblätter*, 1929, pp.312-314. 이들은 유급(有給) 순회교리교사와 전교회장들이었다.

68) 슈테거 신부는 1922년 7월 11일에 슈바이클베르크 수도원에서 서원하였고 1926년 7월 11일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930년 4월 21일에 덕원수도원으로 파견되었는데, 슈바이클베르크 수도원의 부설학교에서 교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1931년 12월 7일에 당시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읍(咸鏡南道 永興郡 永興邑)에 위치했던 영흥본당(주보: 성 요셉, 1931.설립, 1949.폐쇄됨)에 초대 주임 히머 신부와 함께 보좌 신부로 부임하였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의 책(연대기), 1991, 585-589쪽(영흥본당 연대기, 1931.12.-1932.5.30.)). 그리고 1935년 중반이후 영흥본당 주임으로 활동하면서 교리교육에 대한 특별한 재능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1949년 4월에 슈테거 신부는 강론과 교리교육을 통한 반공산주의 활동으로 체포되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해 유물론을 반박한 혐의로 수감되었고 이후 1950년 10월 3일과 4일 사이의 밤에 공산당원에 의해 살해되었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17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543-572쪽)

태로 인식되었다.<sup>69)</sup> 제1기 선교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히머 신부는 1931년 12월에 영흥 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후 주변 외진 지역을 순방하며 신자들을 돌보는데 관심을 기울인 반면, 보좌 신부인 젊은 슈테거 신부는 본당을 지키며 임시성당에 강습소를 설치하는 일부터 착수하여 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sup>70)</sup>

슈테거 신부는 과거 유럽인 선교사들의 선교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통찰하고 당시 선교지 지역사회의 변화에 적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었다.<sup>71)</sup> 그의 선교대상은 도시민이나 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설립한 선교학교의 교육목표는 ‘조선인들의 자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이들을 중산층으로 양성하며 미래 교회의 토양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학교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인 아이들의 1/3만 학교에 다니고 2/3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숙명론자들입니다. 운명에 저항하거나 당당하게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저는 아이들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도덕, 종교, 기초철학, 조경, 식물학,

69) *Chronik Yonghung Mai 1933 bis Oktober 1935*, 38.; Gregorius Steger, 1932.3.31., 왜관 문서고 소장 서한.

70) Gregorius Steger, 1935.6.16., 왜관문서고 소장 서한.

71) “19세기 박해 상황에서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발전해 가는 도시에서 깨어있는 공동체들을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시골 고향에 영향을 미친다. 산골짜기로부터 도시로 신앙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큰 효과와 의미가 없다.”(요한네스 마르, 앞의 책, 2012, 545쪽에 수록된 요셉 쟁글라인(Joseph Zenglein, 宋萬協, 1911-1991. 1937.8.29.덕원수도원으로 파견) 신부의 회고록 번역을 일부 재인용함: P. Josef Zenglein, *Erinnerungen aus meinem Leben in Heimat und Mission*, Typoskript Munsterschwarzach 1991, 95.).

양봉 외에도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 같은 보건 위생에 대해서도 가르칠 생각입니다.<sup>72)</sup>

이렇게 베네딕도회는 먼저 초등교육을 착수하고 순차적으로 경성에서 운영했던 실업학교를 설립하고, 나아가 중등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도 계획하고 있었다. 본당부설 초등교육기관인 해성학교와 해성학원(호수천신학교) 외에 야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산술, 부분적으로 일본어 등을 가르치는 문맹퇴치와 종교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31년에 원산교구에는 26개의 야학교와 교리학교가 운영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학생수가 100여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제2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상의 특징은 교육과 동시에 교회의 상징으로서 일본 당국과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교회건물의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회건축물의 범주에는 성당 및 사제관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선교사들에게 기대하는 교육활동의 장으로써 학교건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베네딕도회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교학교들은 전례와 교육을 겸하는 초가지붕의 전통가옥이었으므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외관상으로도 그리스도교 건물임을 드러내는 화려한 개신교 교회건물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에게는 종탑이 있는 교회건물의 건립을 위한 비용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sup>73)</sup>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본당에 배치되면 필요한 선교 자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사목활동과 교회건물 건립 등 선교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거의 본국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신자들의 후원금으로 조달

72) Gregorius Steger, 1932.5.7., 왜관문서고 소장 서한.

73) BISCHOF BONIFATIUS SAUER O.S.B., "SCHULE UND KATECHISTENPROBLEM IM APOSTOLISCHEN VIKARIATE WONSAN, KOREA", *Die katholischen Missionen*, Freiburg, 1931, pp.131-134.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슈테거 신부가 영흥본당에 부임한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세례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은 1,000명이 넘었다.<sup>74)</sup>

## 2) 가톨릭 운동과 전례개혁운동

제2기 선교사들은 그라프(1928.5.27.파견) 신부, 에프렘 두르라흐(Ephraem Durlach, 우(禹), 1899-?(퇴회), 1928.5.27.파견) 신부, 담(1928.5.27.파견) 신부, 슈테거(1900-1950.순교, 1930.4.21.파견) 신부, 엘리시오 콜러(Eligius Kohler, 1899-1963, 1930.11.9.파견) 신부, 솔라이허(1906-1952.순교, 1932.4.10.파견) 신부, 앙크(1907-1950.순교, 1934.4.2.파견) 신부, 오토(1912-1952.순교, 1937.8.29.파견) 신부 등이다. 이들 가운데 콜러 신부는 평양교구에서 개최된 가톨릭 운동 위원회 회의(1935.9.)에 원산교구의 대표자로 참석하였다. 그는 덕원수도원의 정기 월례회합에서 교리교육에 관하여 강연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가톨릭 운동의 추진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이다.<sup>75)</sup>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당시 독일 선교학계에서 활발히 논구되던 근대적 선교방식과 토착화에 대한 적극적 실천과 실험을 병행하며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톨릭 운동의 범주에서 전례개혁운동과 청소년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즉 본당에서의 장엄한 전례와 교리교육, 그리고 본당 부설 선교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과 함께 대운동회와 청소년 대회, 덕원신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음악회, 연극 등의 행사를 통해 신자들을 일치시키며 연대를 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된 문화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원산교구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신자들 사목에서 있어서 가장 고심한 연령대가 청년들로, 이들을 연대 및 일치시키는 문제가 큰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원산에서 청년단체를 설립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은 1920년

74) 요한네스 마르, 앞의 책, 2009, 633쪽.

75) *Chronik*, 1935. Nr.7 pp.20-30.

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1931년에 두르라흐 신부가 보좌로 부임하여 '원산가톨릭청년회'를 발족시키고 상세하게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확고한 틀을 부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교구의 가톨릭 청년 운동은 사우어 주교의 지지하에 추진되었으며, 월레 주교 성체 성사와 강론을 통해 청년들에게 종교적 열정을 심어주고 종교지식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산교구에는 임마꼴라다 여자청년회(1930), 원산가톨릭청년회(1931), 덕원가톨릭소년회(1933), 영흥가톨릭소년회(1936) 등의 청소년 단체가 조직되어있었다.<sup>76)</sup>

1930년대 말 그라프 신부는 조선에서 베네딕도회가 추진 중인 가톨릭 운동의 성격을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그는 먼저 서두에 '개종'이라는 용어가 초기에 유럽에서는 "문명화된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지만, 그 본질은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본론에 들어가고 있다.

그는 콘라도 라프(Konrad Rapp, 朴教範, 1896-1932) 신부를 중심으로 착수된 최초의 조선어 미사경본인 『미사규식 네가지』(1931.7.20. 팔도구천주당 발행)의 발간을 언급하면서, 연길지목구에서 이어 원산대목구에서 추진 중인 가톨릭 운동이 전례개혁운동의 성격을 띠는 운동임을 설명하고 있다.<sup>77)</sup>

조선어 전례서의 번역과 전례에서의 적극적인 사용 및 적용이 주요 내용이지만, 성전의 내부구조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례에 신자

76) *Chronik*, 1931.1.1.-1931.12.31.(von Wonsan), pp.10-15.

77) 연길지목구 소속의 라프 신부는 1931년 가을에 부지목구장겸 용정분당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활동했던 사제이다. 그는 1896년 1월 7일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교구 엘자흐(Elzach)에서 출생하였다. 성 안셀모 대학교(collegio S. Anselmi)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뮌헨대학교(universitate Monacensi)에서 신학과 교회법을 공부하였다. 1920년 10월 7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에서 서원하고, 1925년 7월 19일 사제서품을 받은 뒤 1925년 9월 27일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라프 신부는 독일어와 라틴어 외에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조선어, 중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1932년 6월 5일 만주 대령동 근처 운하시에서 일본 관동군에 의해 피살되었다(장명선, 앞의 논문, 2023, 110쪽의 주 29)를 재인용함).

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3차원적 평면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 성예술품(聖藝術品)에 대해서는, 덕원과 연길의 수도원이 언젠가는 동아시아 지역민들의 전통적인 예술 양식을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완벽한 이미지(회화), 십자가상, 조각상 등을 생산하게되기 전까지는, 조선으로 유입되는 모든 성물(聖物)에 대하여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들의 수입을 금하여 신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sup>78)</sup>

교회서적에 대해서는 “현재(1937년), 전례를 통한 내적 희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사이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교리교육, 특히 성사(聖事)적 깨달음을 위하여 교리교육 자료가 필요하며, 전례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편집·보완된 성가집이 거의 완성 중에 있으며, 기타 성무일도서(聖務日禱書), 교회력(教會曆, 라틴어: Annus Ecclesiasticus) 편찬·보급, 조선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여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연도(煉禱))와 장례 및 연(煉)미사를 위한 서적, 그리고 아동 대상의 교회서적 발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서적과 관련하여 각 선교기지(본당)에서 주력한 활동은 공산주의 사상과 개신교 교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교육이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1936년 9월 슈테거 신부가 저술하여 완성한 『교리강의』(1939. 덕원수도원 발간)는 조선어로 된 교리교사용 교리서이다.<sup>79)</sup> 이 교재가 발간되기 전까지 각 본당과 공소에서는 주로 경성(京城)에서 발간된 『요리강령(要理綱領)』(1910)을 교재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성교요리문답(聖教要理問答)』(1936)과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教要理問答)』(1937)을 사용하였다.<sup>80)</sup> 『교리강의』의 특징은 “표와 그림을 통해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일에 비중을 두어 신자들에게 프랑스 선교사

78) Olaf Graf, “Liturgische Missionsarbeit im Abtei-Vikariat Wonsan(Corea)”, *Liturgisches Leben* Jg.4. 1937, pp.218-231.

79) 1942년에 『교리강의 신조편』 1권이 간행되었고, 이어서 『교리강의 계명편』 2권(간행 날짜 미상), 『교리강의 성사편』 3권(1943년)이 간행되었다.

80) 원아드리아노 감준, 『성교요리문답』, 京城: 京城府明治町 天主教會, 1936; \_\_\_\_, 『천주교요리문답』, 京城: 天主教會, 1937.(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앞의 책, 1987, 177쪽).

들이 해온 종래의 단순 암기 및 암송이 아닌 이해를 강조하며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목표로 저술한 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조선의 역사와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례를 찾아 조선인에게 적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sup>81)</sup>

〈표 1〉 1937년 그리스도교 관련 총독부 통계<sup>82)</sup>

	장로교	감리교	안식교	동양 선교회	구세군	일본교파	천주교	계	전국
교회	합남:172	13	9	19	6	3	14	236	5,004
	합북: 85	-	1	2	-	4	8	109	
목회자	122	13	4	22	4	7	15	189	3,936
	81	-	1	16	-	5	6	109	
선교사	9	5	-	-	-	-	15	29	406
	9	-	-	-	-	-	6	15	
신자	9,627	948	336	1,522	639	14	6,432	19,698	499,323
	8,666	-	36	1,039	-	16	1,769	11,676	

\* 이 통계에는 침례교와 다른 소 종파들의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원산교구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하며 선교활동을 펼친 결과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1937년 총독부에서 시행한 함경도지역의 종교조사에 따르면, 장로교에 이어서 천주교 교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조선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이 지역의 총신자수는 연길지목구 분할(1928년)후 1929년에는 2,922명이었으나 10년 후 1939년에는 10,000여명이었다. 그리고 1941년 상반기의 총신자수는 12,000여명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당

81) 교리교수의 목적은 예비자나 아동들을 능동적인 신자로 양성하는 데에 있었으며, 특히 이 단계에서는 신앙의 증거 방법과 전교에 참여하는 일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1920년대에 뮌헨에서 시작되어 유럽전역에 보급된 ‘뮌헨 교리교수법’이다. 조선에 처음 도입된 교수법은 교육학적 심리학적 교수방법을 교리교수에 적용한 것으로, 이 방법을 통해 예비자들이 교리를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상적으로 소화시키고 생활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한국교회사화』(68): 교리 강의, 『교회와 역사』 제85호, 1982.8.25., 1쪽).

8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저,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25쪽의 ‘<표 II-26> 1937년 기독교 관련 총독부통계’를 재인용함.

시 사우어 주교아빠스, 독일인 신부 33명, 조선인 신부 5명, 툇징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파견된 수녀 21명과 조선인 수녀 22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덕원신학교에는 신학생 30명이 재학 중이었다.<sup>83)</sup>

### 3) 현지인 가톨릭 지도자 양성

#### (1) 현지인 사제 양성

원산대목구가 설정되자 베네딕도회가 가장 먼저 착수한 교육활동은 현지인 사제 양성이었다.<sup>84)</sup> 이들이 경성 백동수도원에 설립하여 운영한 소신학교(1921.11.-1927.9.)는 1927년에 덕원으로 확장하여 이전되었고, 덕원신학교(1927.11.-1949.5.)는 당시 언론계로부터 천주교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조선인들의 교육열에 부응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sup>85)</sup>

덕원신학교는 신학생들을 “사제이자 동시에 천주교의 대변자로서 종교적, 윤리적 의미에서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정규교과목 외에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토록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학생 주도로 창간된 교지 『신우』(1933.창간)의 발간 및 후원이었다. 이 교지는 수양기(修養期)의 신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사목활동을 준비하는 수련의 한 장(場)이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조선에서 가톨릭 운동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강화된 문서전도를 위하여 필재(筆才)를 연마하도록 하는 것이 발간목적이었다.<sup>86)</sup>

오토 신부의 서한에 따르면, 1939년부터 덕원신학교에서는 교리문답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목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이 과목의 교

83) 「조선천주교회현세(現勢) 약요 1940-1941」, 『경향잡지』 제939호, 1941.10.12., 190쪽.

84) Abt Bonifatius Sauer an Abtprimas Fidelis von Stotzingen, 1918.12.30., 왜관문서고 소장.

85) “사립종교학교로 인가받은 관북지역의 유일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일반의 기대가 극히 크다”(「德源神學校擴張. 元山天主教會財團을引繼. 中等,高等,哲學科等增設」, 《조선일보》 1935.2.12., 3면 5-7단).

86) 장정란, 「《神友》 연구」, 『教會史研究』 26, 2006, 155쪽.

육목적은 조선인 사목활동상의 특징과 신학의 범주에서 종교적 섭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신학생들을 ‘숙련된 연설가’로 양성하는 것으로 이는 『신우』의 발간 목적과 동일하다.<sup>87)</sup>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우』가 폐간되자 덕원신학교에서 이 교과목을 신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신우』의 기고문 저자의 상당수는 조선 천주교회 가톨릭 운동 기관지인 『가톨릭靑年』(1933.6.-1936.12.정간, 1947.4.복간)과 『가톨릭朝鮮』(『가톨릭연구강좌』, 『가톨릭硏究』, 1934-1938)의 주요 기고자였다. 예컨대 솔라이허 신부와 한윤승(韓允勝, 필립보, 1911-1949.순교) 신부의 기고문들은 대부분 개신교 교파의 기원, 발전 그리고 성격을 다루었다.<sup>88)</sup> 『가톨릭청년』의 주요 기고자들

87) 쿠니베르토 오토 신부가 친척과 지인들에게 보낸 서한, 덕원에서 1939.6.8., 왜관문서고 소장.

88) 솔라이허 신부의 기고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안세명(안신부 A. Schleicher), 「그리스도는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인가?」, 『신우』, 1935년, 100-111쪽; \_\_\_\_, 「현대(現代)에 저명(著名)한 신학자(神學者)와 그들의 저서(著書)」, 위 교지, 1935년, 153-158쪽; \_\_\_\_, 「가톨릭 교회(教會)의 성서관(聖書觀)」, 위 교지, 1936년, 6-11쪽; \_\_\_\_, 「安息教와 그敎理」, 『가톨릭청년』, 1936년 5월호, 14-17쪽; \_\_\_\_, 「安息教와 그敎理」(二), 위 잡지, 1936년 7월호, 16-21쪽; \_\_\_\_, 「安息教와 그敎理」(三), 위 잡지, 1936년 8월호, 2-7쪽; \_\_\_\_, 「安息教와 그敎理」(四), 위 잡지, 1936년 9월호, 6-11쪽; \_\_\_\_, 「가톨릭 교회와 현대사상: 40주년 기념강연」, 위 잡지, 1936년 10월호, 61-67쪽; \_\_\_\_, 「安息教와 그敎理」(五), 위 잡지, 1936년 11월호, 2-5쪽; \_\_\_\_, 「성서(聖書)와 자연과학(自然科學)」, 『신우』 1937년 10-19쪽; \_\_\_\_, 「수도생활을 지망하는 조선청소년들에게 여함」, 『가톨릭조선』 1937년 제4권 제3호, 47-55쪽; \_\_\_\_, 「프로테스탄교파(일명 예수교)의 기원」, 「발전의 사적연구」, 위 잡지, 1937년 제4권 제12호 14-19쪽; \_\_\_\_, 「강좌 - 프로테스탄교파(일명 예수교) 기원발전에 관한 사적연구」,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1호 56-58쪽; \_\_\_\_, 「프로테스탄교파연구 - 서서의 종교개혁」,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2호, 44-46쪽; \_\_\_\_, 「강좌 - 프로테스탄주의의 발전개관」,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3호, 46-49쪽; \_\_\_\_, 「프로테스탄 「독마」의 연혁과 그 본질」,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6호, 26-28쪽; \_\_\_\_, 「성공회의 기원과 그 본질」,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7·8월합병호, 38-41쪽; \_\_\_\_, 「성공회의 연혁과 그 본질」,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9호, 37-40쪽; \_\_\_\_, 「조선에 수입된 장로교회」,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10호, 30-32쪽; \_\_\_\_, 「조선에 수입된 장로교회」,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11호, 20-22쪽; \_\_\_\_, 「장로교의 교의본질」, 위 잡지, 1938년 제5권 제12호, 52-53쪽. 한윤승 신부의 글은 다음을 참조할 것: 한윤승(한 비리버), 「맹목적 자유사상(盲目的自由思想)을 파기(破棄)하라!」, 『신우』 1호, 1933년, 57-60쪽; \_\_\_\_, 「북간도(北間島) 성교회(聖教會)와 김이기(金以器)」, 위 교지, 1933년, 42-48쪽; \_\_\_\_, 「철학(哲學) 제체계(諸體系)에 대(對)한 비판(批判)」, 위 교지, 1934년, 11-21쪽; \_\_\_\_, 「사복음(四福音)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천주성

가운데 로트 신부는 호교론적 기고문, 클링자이스 신부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등 주로 사상적 문제를 비교하며 다루었다.<sup>89)</sup> 결국 이들의 기고 활동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의 반종교 운동과 개신교의 교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신학생들의 필재 훈련과 더불어 덕원수도원과 덕원신학교에서는 사제로 서품된 조선인들을 현지인 지도자로 임명하여 예비훈련을 시키면서 장차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신학교의 학문적 소임을 담당하고 수도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의 후임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젊은 조선인 베네딕도회원들이 장차 새로운 차원에서 조선어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학문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선에 ‘참

---

(天主性)과 그의 영적(靈跡)», 위 교지, 1935년, 11-31쪽; \_\_\_\_, 「말딩 루테루 종교개혁(宗教改革)의 진상(真相)», 위 교지, 1936년, 12-30쪽; \_\_\_\_, 「말딩 루터의 人格論」(一), 『가톨릭 청년』, 1936년 5월호, 36-42쪽; \_\_\_\_, 「말딩 루터의 人格論」(二), 위 잡지, 1936년 6월호, 44-47쪽; \_\_\_\_, 「말딩 루터의 人格論」(三), 위 잡지, 1936년 7월호, 52-58쪽; \_\_\_\_, 「간도 천주교전래사; 金以器와 그弟子」, 위 잡지, 1936년 10월호, 22-29쪽.

- 89) 로트 신부의 호교론 관련 글은 다음을 참조할 것: 루치오 로트(Roth, Lucius), 「大戦前後에 獨逸가톨릭教會의 情勢」, 『가톨릭 청년』, 1933년 6월호, 12-14쪽; \_\_\_\_, 「大戦前後에 獨逸가톨릭教會의 情勢」, 위 잡지, 1933년 7월호, 11-13쪽; \_\_\_\_, 「大戦前後 獨逸가톨릭教會의 情勢」(三), 위 잡지, 1933년 8월호, 20-26쪽; \_\_\_\_, 「존무디의 改宗」, 위 잡지, 1933년 10월호, 26-31쪽; \_\_\_\_, 「人類學上으로 본 神의 存在」(一), 위 잡지, 1934년 1월호, 2-5쪽; \_\_\_\_, 「人類學上으로 본 神의 存在」(二), 위 잡지, 1934년 2월호, 16-20쪽; \_\_\_\_, 「人類學上으로 본 神의 存在」(三), 위 잡지, 1934년 3월호, 24-29쪽; \_\_\_\_, 「人類學上으로 본 宗教의 起源」, 위 잡지, 1934년 4월호, 2-7쪽; \_\_\_\_, 「人類學上으로 본 傳統」, 위 잡지, 1934년 6월호, 8-13쪽; \_\_\_\_, 「人類學上으로 본 傳統」(二), 위 잡지, 1934년 7월호, 2-7쪽. 클링자이스 신부의 사상관련 기고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루페르토, 「철학(哲學)에 대(對)하여」, 『신우』 1호, 1933, 7-13쪽; \_\_\_\_, 「社會主義의 概念과 그 發達」, 위 잡지, 1935년 1월호, 2-7쪽; \_\_\_\_, 「社會主義의 資本主義에 對한 鬭爭」(一), 위 잡지, 1935년 2월호, 2-7쪽; \_\_\_\_,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鬭爭」(二), 위 잡지, 1935년 3월호, 2-4쪽; \_\_\_\_, 「社會主義와 自由主義」, 위 잡지, 1935년 5월(제3권 제5호), 2-6쪽; \_\_\_\_, 「所有權의 起原」, 위 잡지, 1935년 7월호, 14-18쪽; \_\_\_\_, 「世界歷史에 대한 社會主義의 見解」, 위 잡지, 1935년 9월호, 2-7쪽; \_\_\_\_, 「社會主義의 結婚觀」, 위 잡지, 1936년 1월호, 2-5쪽; \_\_\_\_, 「현대(現代) 가톨릭철학(哲學)」, 『신우』 6호, 1938년, 3-20쪽; \_\_\_\_, 「유물론(唯物論)과 영혼(靈魂)의 존재(存在)」, 『신우』 7호, 1939년, 12-29쪽.

평화'가 오면 현지인 사제들이 '학문적 소임'을 맡아야 합니다. [...]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교육하고 육성하여, 장차 스스로 수도원을 영적·학문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sup>90)</sup>

이에 대한 일환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덕원신학교에서의 교수와 조선인 수사들의 교육 및 지도가 조선인 부제와 사제들에게 위임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38년 8월, 덕원수도원에서 회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리강좌는 레오폴도 다베르나스(Leopoldus Graf des Effants d'Avernas, 羅碧宰, 1887-1944) 부원장 신부, 담 신부, 술라이허 신부, 슈테거 신부 등과 함께 임화길(林和吉, 안드레아, 1911-1988)과 김 루수 부제들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최병권(崔丙權, 마티아, 1908-1950. 순교) 신부는 1938년에 사제품을 받은 후 덕원신학교에서 교회사 강의를 담당하였다. 김이식(金利植, 예로니모, 1920-1950. 순교) 신부는 1949년 초부터 소신학교에서 교수를 시작하였다.<sup>91)</sup>

90) 1949년 4월 12일 덕원신학교 철학교수 루페르트 클링자이스 신부가 상트 오틀리엔 수도원 크리소스토모 슈미트 총아빠스에게 보낸 편지(P. Rupert Klingseis an Erzabt Chrysostomus Schmid 12. April 1949., 왜관문서고 소장).

91) *Chronik*, 1939. Nr.5., pp.1-14(덕원수도원 연대기, 1938.6.-12.). 최병권 신부는 내평본당 공소인 안변출신이었다. 원산대목구 소속으로 소신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4월 2일 사제품을 받았다. 덕원수도원에 머물면서 번역일과 독일 수도자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덕원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를 담당한 후, 1944년 11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평양 서포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영성 지도 신부로 일하다가 이춘근(李春根, 라우렌시오, 1915-1950. 순교) 신부에게 인계한 바 있다. 최 신부는 1950년 가을 평양교화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48년과 1949년에 덕원신학교 안셀모 로마 학장신부가 상트 오틀리엔 연합회 크리소스토모 총아빠스에게 서한으로 보고한 신학교 교수들의 명단은 다음 문서들을 참조할 것.: P. Anselm Romer an Erzabt Chrysostomus, 1948.4.21.; P. Anselm Romer an Erzabt Chrysostomus, 1949.1.20. 이춘근 신부는 덕원수도원 소속 성직수사였다. 그는 예수성심 신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후 1939년 6월 24일 명동성당에서 경성대목구장 라리보(A. Larribeau, 元亨根) 주교의 주례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교구 사제로서 그는 황해도 사리원 본당 보좌로 1년간 사목한 후, 1940년 7월에는 경기도 장호원(現 감곡) 본당 보좌로 1년 정도 사목하였다. 이후 영성 생활에 매진하기 위하여, 서품 2년 후인 1941년에 주교의 추천을 받아 덕원수도원에 입회한 후, 1942년 7월 26일에 첫 서원을 하고 1945년 8월 15일에 종신서원을 한 후, 서포본당 제9대 본당 신부로 사목했다. 그는

그리고 김치호(金致鎬, 아우구스티노, 1914-1950.순교) 신부는 1942년부터 덕원본당 보좌로 본당 사목과 동시에 조선인 수련자 지도를 보좌하였다. 김종수(金宗洙, 베르나르도, 1918-1950.순교) 신부는 1948년 12월에 잉크 신부가 체포되자 장차 수도원 재정 담당 후임으로 보좌역할을 하면서 조선인 수사들(수련자와 청원자) 18명을 대상으로 수련장 소임을 담당하였다. 구상 시인의 형인 구대준(具大濬, 가브리엘, 1912-1950.순교) 신부는 1940년 3월 25일 사우어 주교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은 후 덕원신학교 기숙사 사감을 맡았는데 조선인 사감은 처음이었다.<sup>92)</sup>

1950년 5월 14일 서포수녀원이 해산되고 수녀원 건물 일체가 몰수된 후 서포본당 소속 수녀 안 공소로 거처를 옮겨 계속해서 신자들을 돌보던 중, 6월 24일 밤에 평양교구의 모든 신부들이 체포될 때, 함께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고 행방불명되었다. 1950년 10월 5일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할 때 평양에서 피살된 것으로 전한다(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앞의 책(사망자 명부), 2007, 19쪽;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463-473쪽).

- 92) 김치호 신부는 착복식과 수련기에 사우어 주교아빠스로부터 베네딕도회 사부의 수도명('베네딕도')을 받으면서 장차 수도회의 장래를 이끌 후임으로서 축복을 받은 인물이다.(Chronik Tokwon Juli 1937-Juli 1938, 15). 1942년 5월 1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김종수 신부 관련 글은 다음 서한을 참조 할 것: Abtbischof Bonifaz Sauer an Erzabt Chrysostomus Schmid, 1949.4.26., 왜관문서고 소장. 김종수 신부는 1950년 10월 평양 외곽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대준 신부는 1922년 경성 백동수도원 소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27년에 덕원으로 이주하여 학업을 계속하였다. 구대준 신부는 과묵하고 생각이 깊어 철학, 신학 과정에 모두 두각을 나타냈으며 여러 분야에 조예가 깊었다. 특히 문학에 뛰어났고 덕성이 깊어 형제들과 화목했다. 그는 1940년 3월 25일 덕원수도원 성당에서 사우어 주교의 주례로 이재철(李載喆, 베드로, 1912-1950.순교) 신부와 함께 사제로 서품되었다. 구대준 신부는 서품된 후 조선인으로서의 처음으로 덕원신학교의 사감 신부로 임명되어, 신학생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했다. 1942년에는 흥남 제2대 본당 신부로 부임했는데 당시 흥남에 수용되어 있던 연합군 포로(영국군)들을 찾아가 성사를 집전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설학원 폐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흥남 해성학교(1937.4.21.인가)를 운영하였고 사제관에 대건의원을 개설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사업을 전개하였다. 해방 후에는 회령본당의 비트마르 파렌코프(Witmarus Farrenkopf, 朴偉明, 1906-1945) 신부가 소련군에 피살되고 계림본당의 침머만 신부가 사망하자 두 본당의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하여 부임해 갔다. 그는 1949년 5월 10일에 시작하는 원산 수녀원 조선인 수녀들의 연피정 지도를 하러 갔다가, 그날 밤 수녀원에서 정치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되었다(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389-397쪽; 윤공희 구술; 권은정 글, 『윤공희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파주: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2022, 144쪽).

## (2) 현지인 수녀와 여성인재 양성

투스징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St. Benediktus-Missions Schwestern in Tutzing, 1885.9.24.창설, 이하 '투스징 수녀회'로 표기)의 조선(함경도) 진출은 1921년 11월 27일에 사우어 주교가 수녀회 모원을 방문하여 선교수녀 파견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한다. 이후에 1925년부터 1940년까지 11차에 걸쳐 총 31명의 선교 수녀들이 파견되었다.

수녀들은 함경도에 원산수녀원과 5개 분원(신고산(1933년), 회령(1936년), 청진(1940년), 함흥(1941년), 흥남(1948년, 임시분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분원에서 수녀들은 시약소(施藥所) 겸 무료진료소 3개소와 의원 2개소를 중심으로 자선사업의 성격을 띤 의료 활동을 하였으며,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본당과 공소의 주일학교(교리학교)에서 교리교육을 담당하였고, 해성학교와 빈민학교(호수천신학교) 등 본당 부설 교육기관에서 일반교과목과 종교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산수녀원과 수련원에서 현지인 수녀 양성은 이들의 개인적 소질에 따른 인재 양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본당 부설 초등교육기관인 해성학교와 수녀원 부설 유치원에서 일할 교원 그리고 의료 활동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양성에 비중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8명(조선인 16명, 일본인 1명, 독일인 1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사범학교 교사 9명, 유치원 교사 6명, 간호사 2명, 의사 1명이다.

함경도에서 베네딕도회의 의료 활동은 덕원수도원과 원산수녀원에서 각각 추진되었다. 덕원수도원에서는 1928년부터 요셉 그라하머(Ioseph Grahamer, 威要燮, 1888-1950.순교) 수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그라하머 수사는 경성에서부터 '간호수사'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의사들도 주목할 만한 의학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1928년 5월 덕원수도원에 진료소(의무실)가 설립되었고, 1929년에 작은 병원(덕원 병원)을 설립하여 빈민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김재환(Placidus, 1890-1962) 수사가 그의 조력자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과 임종대세

를 주었다.<sup>93)</sup> 이 병원은 1932년 1년 동안 진찰 21,065회, 약 조제 27,210회, 왕진 2,070회를 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리고 1933년에 증축되어 대기실, 진찰실, 봉대실, 전기방사선치료실, 약국, 수술실, 8개 병실 겸 입원실을 갖추고 있었다.<sup>94)</sup>

원산수녀원에서 툿쯔 수녀회 수녀들은 1925년부터 시약소를 개설하여 간단한 치료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1929년에 신축된 시약소는 ‘마리아의 도움’으로 명명되었으며, 프룩트오사 게르스트마이어(M. Fructuosa Gerstmayr, 1898-1952.순교) 수녀가 책임간호사로 임명되어 25년간 활동하면서 2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대세를 주었다.<sup>95)</sup> 게르스트마이어 수녀는 조선에서 통용되는 정식 의사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인 의사 디오메데스 메페르트(Diomedes Meffert, 1938.6.29.서원) 수녀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시약소를 운영했는데, 일요일(주일)과 교회력으로 기념일(축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평균 40-50명의 극빈자를 치료하였다.

신고산 분원(1933.3.19.축성식, 주보: 성 요셉)에서 수녀들은 신고산본당의 카누트 다베르나스(Canut Graf des Enffans d’Avernas, 羅國宰, 1884-1950.순교) 주임신부가 설립한 본당 부설 해성학교(1935.3.설립)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의 종교교육(교리교육)을 담당하였다.<sup>96)</sup> 그리고 신고산의 시약소는 1947년

9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연대기), 1991, 127쪽(덕원수도원 1928.7.-1929.1.).

94) 장정란, 「외국선교회의 한국 선교-독일 베네딕도회의 원산교구 시대-」, 『인간연구』7, 2004, 241-243쪽.

95) 게르스트마이어 수녀는 1923년 2월 2일 툿쯔 모원에서 첫 서원을 하고 1926년 9월 4일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도움’ 시약소의 책임 간호사로 임명되었다. 시약소의 일이 끝나면 빈민지역과 거지들이 모여 살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대세를 베풀었다. 그녀는 이 지역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름의 극심한 더위, 비, 태풍 그리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 얼음, 눈과 싸우며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다. 이로 인해 두 번의 티푸스를 앓으면서 청각에 손상을 입었다. 게르스트마이어 수녀는 1949년 5월 공산당원에 체포되어 1952년 사망하였다(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234-249쪽).

96) 다베르나스 신부는 1884년 3월 11일 그라쯔-세카우 교구의 슈름도르프(오스트리아 쉬다이어마르크)에서 영광 다베르나스의 백작인 하인리히와 그 부인 안나 플라 슬하에서 태어났

11월부터 프리텔마(Friedhelma Grimm, 金德順, 1940.1.10.서원) 수녀가 맡아서 운영하였다.

함흥 분원인 성모 성심 수녀원(1941.8.22.설립)에 설립된 예수 성심 의원(1941.9.24.축성식, 1941.9.25.개원)에는 일본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 정식의사인 메페르트 수녀가 의원장이자 의사로 활동하였다.<sup>97)</sup> 이곳은 헌신자 장 아네타(1927.2.26.서원, 1910-1950.순교)를 포함하여 한때 공동체에 7명이 넘는 적도 있었다.<sup>98)</sup> 메페르트 수녀는 인근에 '성심의원 의원장, 독일의 유명한 의사, 하늘이 낸 의술을 가진 독일 의사'라는 칭호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하루 60-8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왕진을 겸하였으며 업무는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sup>99)</sup>

홍남 분원(1948.5.20., 설립)은 히머 신부의 후임으로 홍남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구대준(具大濬, 가브리엘, 1912-1950.순교) 신부가 1944년 사제관을 대건의원(大建醫院)으로 개축한 후 빈민들 대상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 젤트

---

다. 귀족이었기 때문에 성인 왕을 후보성인으로 모셨는데, 그의 친형도 이미 같은 수도원에 입회하였고 후보성인으로 레오폴드 후작을 선택하였다. 1912년 7월 28일 첫 서원을 하였고 1914년 8월 13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는데, 그의 서품식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앞당겨졌다. 1915년 8월 27일에 종신서원을 받고 1921년 1월 16일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다베르나스 신부는 1950년 11월 6일에 만포수용소에서 순교하였다.

97)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앞의 책, 1987, 168-173쪽.

98) 헌신자 장 아네타는 1927년 4월 1일 18세에 원산수녀원에 입회하였다. 그녀는 입회 전 당시의 관습대로 부모의 뜻에 따라 이미 법적 혼인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원산수녀원 소속의 백 베네딕타 수녀의 남동생인 배우자가 혼전에 이미 앓고 있었던 심한 결핵으로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자 수녀원에 입회하였고, 원장 수녀의 조언에 따라 헌신자의 신분으로 수녀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오랫동안 맡은 소임지는 원산수녀원의 수부였으며, 원산의 그리스도 왕 본당에서 선교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그 외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특히 자선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된다(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앞의 책, 2012, 135-141쪽).

99) “함흥교회에서는 지난 가을 새로 의원을 설립하고 이름을 성심의원이라하여 이를 성분도 수녀들에게 위탁하여 경영케 하였는데 원장겸 의사는 데벳펠트 수녀로서 작년 봄에 고국 독일을 떠나 동경에 도착하여 그 해 가을 시험을 치러 개업허가를 바뻐했다는 바 아직 입원 설비는 업스나 가톨릭의 박애정신으로써 일반 환자를 대하여 시내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한다.”(「함흥에 성심의원」, 『경향잡지』 제941호, 1941.12.15., 207쪽)

루드 링크(Gertrud Link, 林仁順, 1935.8.22.서원, 1948.5.3.제4대 원장 취임) 원장 수녀에게 수녀 파견을 요청하여 설립된 것이다.

1948년 중순경 이천 본당의 김봉식(金鳳植, 예로니모, 1913-1950.순교) 신부 역시 원산수녀원에 선교 수녀를 요청하였다. 김 신부는 김 요세파(1932.5.26.첫 서원, +1938.6.18.) 수녀의 동생으로 연길대목구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해방 후 소련군의 진주로 남쪽으로 피신하여 사우어 주교의 허락 하에 이천 본당에서 활동하다가 공산당원들에 의해 순교하였다.

결국 원산수녀원을 비롯한 수녀원 분원들은 원산교구의 주요 본당(선교 기지)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본당에는 평소 순교의 정신으로 준비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활동한 영역은 교리교육을 포함한 교육활동과 의료 활동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원산교구의 함경남북도 관할 본당 (1921년-1940년)

관할 교구	덕원면속구(1940년 설정)
인수·신설 본당	원산(1921.인수), 내평(1921.인수, 1930.고산으로 이전, 신고산으로 개칭), 덕원(1927), 고원(1933.10.28.)
관할 교구	함흥대목구(1940년 설정)
신설 본당	회령(1926), 청진(1926), 함흥(1928), 영흥(1931), 북청(1935), 흥남(1936), 나남(1936.11.9.), 용기·나진(1936.11.9.), 성진(1941), 계림(1941)

\* 원산대목구 관할 지역 및 관할 본당은 1940년에 설정된 덕원면속구와 함흥면속구로 분할됨.

<표 3> 원산수녀원·분원·의료시설 및 순교자 (1925년-1949년)

원산수녀원·분원	의료시설(설립년)
1925. 성 테레사의 집(원산 분원) 1927.6.6. 성 임마쿨라다 수녀원 축성식, 프리오랏(Priorat)으로 승격됨.	시약소(1925) '마리아의 도움'(1929.4.)으로 명명 *프루트오사 게르스트마이어(M. Fructuosa Gerstmayer, 1898-1952.순교) 수녀
1. 신고산 분원 1933.3.19.-1949.5.11., 주보: 성 요셉 *본당: 카누토 다베르나스(Canutus Graf des Enffans d' Avernas, 羅國宰, 1884-1950.순교) 신부	시약소(1933) 마리아의 도움 시약소 부설 인가

원산수녀원·분원	의료시설(설립년)
2. 회령 분원 1936.10.20.-1945.8.13., 주보: 성 알부르그	시약소(1936)
3. 청진 분원 1940.7.22.-1945.8.13., 주보: 성신	시약소(1940)
4. 함흥 분원 1941.8.22.-1949.5.14., 주보: 성모 성심	성심의원(1941.8.22.) 의원장 디오메데스 메페르트 수녀 1941.9.24. '예수성심의원' 축성 *현신자 장 아네타(1910-1950.순교)
5. 홍남 분원(임시 분원) 1948.5.20.-1949.5.30., 주보: 성녀 펠리치타스 *본당: 구대준(具大濬, 가브리엘, 1912-1950.순교) 신부	1944. '대건의원'(大建醫院): 구대준 신부 사제관 개축 의원
6. 강원도 이천 분원 설립계획 1949.1.2.-1949.5.9. 수녀 파견 *본당: 김봉식(金鳳植, 예로니모, 1913-1950.순교) 신부	(본당 선교)
7. 일본 오사카 (1947.7.설립)	

\* 성 데레사의 집: 툇팅 모원에 예측된 원산 분원으로 원산수녀원(성 임마쿨라다 수녀원)의 전신.

\* 시약소: 시약소 겸 무료 진료소

\* 예수성심의원은 파티마병원(1955.설립)의 전신

#### 4. 맺음말

20세기 중반에 북한에서 순교한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평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예컨대 덕원신학교 철학교수 루페르토 클링자이스(Rupertus Klingseis, 吉世東, 1890-1950.순교) 신부는 영원한 삶에 관한 숙고를 오랫동안 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물질인가 정신인가?』(*Ist die Seele der Menschen Materie oder Geist?*)라는 책을 출간하였다.<sup>100)</sup> 덕원신학교 학장 안셀모 로머(Anselmus Romer, 盧

100) 루페르토 신부가 출간한 기획총서 제1권인 이 책은 80쪽으로 구성되어있고 5천부가 출간되었다. 요한네스 마르 박사는 이 책에 대해 루페르토 신부의 스승 클레멘스 보임커(Clemens Baeumker, 1853-1924)의 탁월한 저작 『그리스 철학에서 물질의 문제』(*Das Problem der Materie in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1890)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바 있다(요한네스 마르, 앞의 책, 2012, 380쪽).

炳朝, 1885-1951.순교) 신부는 스스로는 물론 그의 제자들에게 “네가 원하는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네가 행하는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삶의 나침판을 제시했던 인물이었다.<sup>101)</sup> 덕원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이러한 독일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제이자 가톨릭 지도자로 양성되고 있었다. 또한 20세기 순교자로서 ‘하느님의 증 신상원 보니파시오와 동료 37위’에 대한 시복시성 청원이 지니는 각별한 의미는 이들이 한국사의 한복판에서 한민족과 운명을 함께 나누었다는 데 있다.

1930년대 말에 오트 신부는 북한에서의 베네딕도회의 선교활동에 대하여 독일 모원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조선과 조선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진행된 ‘현지적응’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수도회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조선 진출 초기부터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했던 독일 선교사들이 지배정권에 취한 태도에 관하여, 베네딕도회는 선교사이자 수도자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지키고 그들의 선교대상인 조선인들을 중심에 두면서 일제와 공산정권에 대면해서는 ‘표면적인 중립노선’을 일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1884년 수도회 창립시기에 그들이 처했던 정치·사회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베네딕도회는 19세기 말 수도회 창립이 후부터 나치 정부 시기까지 표면적으로 독일 당국의 식민지 정책에 적절히 부응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 선교사들에게는 조선에서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교분리 담론에 대한 찬반이전에 탈정치론적인 경직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 진출하기 전에 동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일련의 갈등과 문제의식을 경험한 상태였다. 그 결과 베네딕도회는 그들의 정체성과 새로운 선교활동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현지인들과의 소통방법, 선교지 문화와 민족적 특성을 바라보는 시각, 식민당국과의 관계, 현지

101) 윤공희 구술, 앞의 책, 2022, 93쪽.

인 성직자 양성과 이들을 후진으로 받아들이는 등 선교활동의 주요 양상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sup>102)</sup>

이러한 배경 하에, 베네딕도회가 북한에 진출한 1921년부터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 연길수도원에 이어 덕원수도원이 폐쇄되는 1949년까지 이들의 선교활동은 당시 독일 선교학계에서 활발히 논구되던 근대적 선교방식과 토착화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원산교구의 관할지에서 그 적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사우어 주교를 비롯한 베네딕도회의 제1기에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전도를 위해 ‘현지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1920년대 이후에 파견된 제2기 선교사들이 추구한 방식으로 ‘현지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성당을 신축하거나 이전하고, 성당·사제관·교회학교 등 교회건물을 근대식으로 건립하여 현지인들에게 근대문화의 상징으로서 천주교를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동시에 본당과 공소의 주일학교, 부설 초등교육기관인 해성학교, 빈민아동 대상의 호수천 신학교, 유치원 등에서 교리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선교기지에서 추진한 교리교육은 독일 청년운동의 영향을 받은 슈테거 신부를 비롯한 제2기 선교사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베네딕도회의 교육활동은 전례개혁운동의 성격을 띤 가톨릭 운동과 함께 추진되었고, 다른 한 축에서 의료 및 자선활동을 전개하여 베네딕도회의 선교활동상의 현실적인 문제였던 개신교 교세와 공산주의 사상에 대응해나갔다.

상기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필자는 새로 발굴한 자료들과 선행연구자들이 이미 검토한 자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재

102) 박보영, 「일제강점기 성 오티리엔 베네딕도회 선교지(Missionsblätter)에 나타난 한국 인 식과 의례변화」,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37쪽.

검토하였다. 먼저 선교사들이 독일에 보낸 기고문의 원고와 보고서 및 지원요청서 등은 일제강점기, 8·15 해방,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동안, 시기별로 일본, 소련군정, 북한 공산주의 당국의 검열을 의식하며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 모원에서는 나치 정부의 감시망을 의식하며 이 글들의 행간에 숨겨진 정보들을 식별하고, 기고문을 선별하며 편집해야하는 한계가 노정되어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공적 문서와 기고문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서한 및 기록 등과 비교검토가 함께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북한에서 순교한 베네딕도회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들의 행적과 활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접근하는 또 다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24. 11. 18. 심사 시작일 : 2024. 12. 2. 심사 완료일 : 2024. 12. 23.

## 참고 문헌

### 1. 자료

#### 1) 정기간행물

『가톨릭朝鮮(『가톨릭연구강좌』, 『가톨릭研究』)』, 『가톨릭青年』,  
『경향잡지(『보감』)』, 『교회와 역사』, 『神友』, 《동아일보》, 《조선일보》

#### 2) 왜관수도원 문서고 소장 문서

*Acta* vol.IV (1925.1.-1944), Geistliche Abtheilung. Zentrales Staatsarchiv,  
Hergestellt im Bundesarchiv, Abteilungen Potsdam

*Chronik* der Kongregation von St. Ottilien. bis 1923 handschriftlich hektog-  
raphiert verbreitet, seither in Jahresbänden gedruckt.

「덕원의 순교자들의 편지들」

「순교자 기고문」

「오티리엔 자료(빌리브로드 제출)」

지철근, 「북간도 천주교 력사」, 2007, 왜관수도원 제공, 미출간 타이핑본.

### 2. 논문 및 저서

Schleicher, Arnulf. “Religiöse und soziale Verhältnisse in Wonsan in ihrer  
Beziehung zur Mission”, *Missionsblätter* 39, St. Ottilien, 1935,  
pp.170-173, pp.216-219.

Sauer, Bonifatius. “Won-san”, *Die katholischen Missionen* 50, Freiburg,  
1921/22, pp.55-57.

\_\_\_\_\_. “Sorgen und Hoffnungen in Wonsan”, *Die katholischen  
Missionen* 51, Freiburg, 1922/23, pp.162-165.

- \_\_\_\_\_. "SCHULE UND KATECHISTENPROBLEM IM APOSTOLISCHEN VIKARIATE WONSAN, KOREA", *Die katholischen Missionen*, Freiburg, 1931, pp.131-134.
- Hiemer, Callistus. "Wie missioniere ich ?",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31, pp.78-82, pp.108-112.
- \_\_\_\_\_. "Koreanische Katecheteten",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29, pp.312-314.
- Mahr, Johannes.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Ostasien, Teilband 1~3*, Sankt Ottilien: EOS, 2009(번역서: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芬道通史』, 칠곡: 분도, 2009).
- \_\_\_\_\_. *Die Märtyrer von Tokwon Glaubenszeugen in Korea 1950-1952*, Sankt Ottilien: EOS, 2011(번역서: 요한네스 마르(Mahr, Johannes) 지음, 이종한 역, 『덕원의 순교자들』, 칠곡: 분도, 2012).
- Max Rast S. J., "Bilder aus der Tarahumara = Mission in Mexiko", *Die katholischen Missionen* 51, Freiburg, 1922/23, pp.165-281.
-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원산수녀원사』, 대구: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Korea. 대구), 1987.
- Graf, Olaf. "ABTBISCHOF BONIFATIUS SAUER OSB – Lebensbild des Grunders der Benediktinermission in Korea", *Hwan Gab: 60 Jahre Benediktinermission in Korea und in der Mandschurei*, Vier-Türme-Verlag Münsterschwarzach, 1973, pp.67-79.
- \_\_\_\_\_. "Liturgische Missionsarbeit im Abtei-Vikariat Wonsan(Corea)", *Liturgisches Leben* Jg.4. 1937, pp.218-231.
- \_\_\_\_\_. "Pionierarbeit im Lande der Morgenstille",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37, pp.8-14, pp.43-51.
- (Privatmitteilungen.) J. M. W., "Korea", *Die katholischen Missionen* 63, Freiburg, 1935, pp.165-166.
- Schicksal in Korea. Benediktiner-Missionäre berichten*, St. Ottilien, 1954(번

역서: 『북한에서의 시련: 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증언』, 칠곡군: 분도, 1997).

Son, Chi Hun. *Studien zur benediktinischen Missionsmethode von 1909 bis 1949 in Korea und in der Mandschurei*, Lizentiatsarbeit zur Erlangung des Grades eines Lizentiaten der Theologie an der Katholisch-Theologischen Fakultät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1996.

교황 비오 11세(Pope Pius XI),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역,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관한 회칙(Divini Redemptoris)』, 가톨릭출판사, 1981.

\_\_\_\_\_,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사십 주년 :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김연수, 「북한 가톨릭교회의 역사적 변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서울 : 도서출판 빅벨, 1998.

박보영, 「일제강점기 성 오틸리엔 베네딕도회 선교지(Missionsblätter)에 나타난 한국 인식과 의례변화」,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전간기 독일-일본 관계와 식민지 조선의 독일 선교사」, 『대구사학』 152, 2023.8.

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NECROLOGIUM*(死亡者 名簿 1910-200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성 마오로 블라치도 수도원, 2007.

송규진, 「함경선 부설과 길회선 중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나진·웅기·청진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57, 2014.

아우구스트 프란츠(August Franzen); 최석우 역, 『세계 교회사』, 칠곡: 분도, 2001.

윤공희 구술; 권은정 글, 『(윤공희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파주: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2022.

- 윤선자,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회 통제 양상」, 『教會史研究』 57, 2020.
- 이경희, 「한국침례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원산사건과 미남침례회 제휴를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상민, 「한국천주교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 운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역사신학 석사학위논문, 2014.
- 장명선, 「베네딕도회의 간도지역 선교활동과 문화운동: 延吉教區, 1921~1946」,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12.
- 장정란, 「『神友』 연구」, 『教會史研究』 26, 2006.
- \_\_\_\_\_, 「외국 선교회의 한국 선교: 독일 베네딕도회의 원산교구 시대 (1920~1949)」, 『인간연구』 7, 2004.
- \_\_\_\_\_, 「한국 성 베네딕도 수도회 출신 순교자 연구 - 시복·시성 대상 인물 분석」, 『教會史研究』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정하선, 「한국전쟁 전후(1945-1953) 천주교인 희생자 사례 연구 : 희생 과정과 희생자 조사 및 현양 활동을 중심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조광, 「시복시성은 왜 필요한가? 순교자들을 발굴하고 공경하는 것의 의미」,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2013년 9월호, 우리신학연구소, 2013.
- 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 연구」, 『教會史研究』 33, 2009.
- 최기영, 「1930년대 《가톨릭少年》의 발간과 운영」, 『教會史研究』 33, 2009.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지,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vol.I~X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2006.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 천주교회사』, 서울: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 \_\_\_\_\_, 『함경도천주교회사 자료집 제2집: 원산교구 연대기』,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1.

ABSTRACT

**Studies on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the  
Benedictine Martyrs**  
- 1920~1952, focusing on activities in North Korea -

Jang, Myung-Seon

Research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Since the Entry into Korea, the Benedictine missionaries have fall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lonial powers included. Thus they took measures on the demand for the expansion of German culture by the German government in Korea which is the colony of Japan. With regard to Japan and the communist regime, they took a position of a superficial neutral line of conduct by keeping their identity and their duty, by putting the Koreans who are their missionary objects at the center.

In this situation, until the closure of Tokwon Abbey in 1949 by the communists, the Benedictine missionary activities were driven by introducing the method of modern evangelization and the discourse on adaptation in the missionary places. Especially in the Wonsan diocese, this application developed in two aspects. One of them is a method of the missionaries who are the 1st generation, for evangelization, they entered into the life of the natives by looking for them.

That of another is a method driven by those of the 2nd generation who are sent to Korea since in the 1920s, looking for the method of bringing to the church by the natives themselves. This one was deployed with the ac-

tivity of education and with Catholic Action which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liturgical movement.

As a result, Catholic is identified as the 2nd religion that has influence after prebyterianism in Hamhung region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 1937. The total number of believers is 500-600 in 1921 in two churches in Wonsan and Naipyung, became 12 churches comprising 12,000 believers in 1941.

Among the missionaries who worked to achieve this result, there were those who are always prepared to receive death as martyrs. And the seminarians of Tokwon Seminary were formed and became a Catholic leader and their successors by being influenced by these people.

**Key words:**

Benediktinerkongregation von St. Ottilien(O.S.B.), St. Benediktus-Missions Schwestern in Tutzing, Diocese of Wonsan, Diocese of Yenki, 38 martyrs, North of Korea, Educational activities, Medical activities, Catholic Action, Liturgical movement.